

2019년 1차 NCCK 에큐메니칼 선교포럼
테오 순더마이어 교수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초청 특강

변화하는 세상과 교회의 선교

일 시 2019년 5월 31일(금)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 소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프란시스홀
공동주최 NCCK 교회일치위원회, 신학위원회, 교육위원회
주 관 NCCK 교회일치위원회

인 사 말

오늘날 세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부르는 거대한 변화 속에 있습니다. 그 변화는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적, 사회적 구조에 이르기까지 삶의 양식과 기반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회는 매우 큰 폭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교회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많은 물음에 응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교'에 대하여 새롭게 고민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과 역사 위에 실현하는 일이며 확장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한국교회는 선교를 한편으로는 교회의 지리적 확장으로, 또 한편으로는 문화의 기계적 이식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변화하는 사회와 일정부분 불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와 단절된 채 마치 섬과 같이 동떨어져 있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고, 사회와 갈등하며 폭력적 상황을 연출하는 존재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일치교육국 내의 교회일치위원회, 신학위원회, 교육위원회 3개 위원회를 중심으로 '에큐메니칼 선교포럼'을 시작합니다. 본 포럼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 현상 속에서 그 변화의 본질은 무엇이며,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응답하며 존재할 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회는 어떤 존재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행해지는 교회의 응답은 어떠한지 알아봄으로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교회의 선교(에큐메니칼 선교)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 첫 시작을 테오 순더마이어 교수님과 함께 하게 되어 큰 기쁨인 동시에 영광입니다. 순더마이어 교수님께서서는 탄탄한 성서신학적, 종교학적, 철학적 기반 위에 선교신학의 기틀을 세우셨으며, 상아탑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아

프리카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또 평소 한국교회에 큰 관심을 보여 주셨기에 교수님의 강연이 한국교회 안에 ‘에큐메니칼 선교’의 지평이 새롭게 열리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주제 강연을 맡아주신 양권석 교수님과 박홍순 박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두 분의 강연을 통해 소비자본주의시대와 다문화시대, 교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교회 선교에 관심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 5. 3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일치위원회 위원장 황선엽
신학위원회 위원장 박찬웅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2019년 1차 NCCK 에큐메니칼 선교포럼
테오 순더마이어 교수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초청 특강
“변화하는 세상과 교회의 선교”
일시: 2019년 5월 31일(금)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소: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프란시스홀

목 차

◆ [특강] 테오 순더마이어 교수 “종교, 폭력, 관용 - 문화와 복음의 만남”	6
◆ [주제강연1] 양권석 교수 (성공회 대학교) “소비자본주의시대: 복음과 문화의 문제”	28
◆ [주제강연2] 박흥순 박사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 “다문화사회에서 서로비추기와 서로배우기 - 연민, 환대, 연대”	41

Religion – Gewalt – Toleranz

Theo Sundermeier

Religion

Bis vor nicht langer Zeit war man in Europa überzeugt, einer religionslosen Zeit entgegenzugehen. Es war nicht nur D. Bonhoeffer, der im Gefängnis durch die Begegnung mit Marxisten, die ihn wegen ihrer Widerstandskraft gegen das Nazi-Regime und als Atheisten beeindruckten, zu diesem Urteil kam. Schon Karl Barth hatte den Begriff desavouiert und das Christentum aus der Gemeinschaft der Religionen herausgenommen. Vor allem war es der Sozialismus in der ehemaligen DD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gierung in Ostdeutschland, der höchst erfolgreich gegen den christlichen Glauben und die Kirchen agitierte, so dass man mit einem gewissen Recht von Ost-Deutschland als der religionslosesten Provinz in Europa sprechen kann.

Im Blick auf die Weltsituation wird man zu einem anderen Urteil kommen. Die Religionen scheinen wieder eine Zukunft zu haben. Sie sind in den Medien präsent und beeinflussen in der einen oder anderen Form das Leben der Menschen, in demokratischen wie in autoritär regierten Ländern. Doch wie sieht die wieder erwachenden Religiosität aus? Es ist nicht die Form einer bürgerlichen Kirchlichkeit, wie wir sie aus demokratisch regierten Ländern kennen. Die etablierten Kirchen registrieren weltweit einen Rückgang ihrer Mitglieder. Doch in welcher Weise äußert sich die erstarkende Religiosität?

Es sind vorwiegend zwei Formen: da ist die in verschiedenen Gestalten lebendige Pfingstbewegung und der sich eher militant gebende Fundamentalismus. Im Grund genommen sind beide fundamentalistische Bewegungen. Zu Recht hat man von einem „weichen“ und einem „harten“ Fundamentalismus gesprochen. Wie ist das zu verstehen, dass zwei so konträre Bewegungen die Religion reaktivieren und beide fundamentalistisch agieren?

종교 - 폭력 - 관용

테오 순더마이어

종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럽은 종교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확신했었다. 이와 같은 확신의 경향은 당시 나치 정권에 반항하여 감옥에 갇혀 있던 무신론자이기도 한 막시스트들에게 깊은 감동을 받아서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되었던 본뮐퍼에게서 만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이미 칼 바르트는 이러한 개념을 거부하고 종교들의 모임에서 기독교만을 따로 떼어내었다. 무엇보다도, 사회주의를 표방하던 이전의 동독 정부는 이러한 기독교 신앙과 교회에 대항하여 가장 성공적으로 선동하였고, 그 결과 동독은 유럽에서 종교가 없는 지역이라 말할 수 있었다.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보면 우리는 이것을 달리 판단 할 수 있다. 종교는 다시 미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언론매체에 항상 등장하고, 민주적이고 국민이 자기 결정권을 가진 나라들에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이런 저런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부흥하는 종교성은 어떤 모습들일까? 그것은 우리가 민주적으로 다스려지는 국가에서 알고 있는 그런 시민적인 교회성의 형태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성 교회들의 교인 수는 점점 쇠퇴해가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강성해져 가는 종교성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는 주로 다음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상이한 형태로 생동감을 드러내는 오순절운동과 다른 하나는 폭력적이고 군사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근본주의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가 근본적으로는 근본주의적인 운동들이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은 아주 적절하게 “연성적인” 근본주의와 “강성적인” 근본주의라는 말로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운동이 어떻게 종교를 재활성화 시키고 또 둘이 다 근본주의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을까?

Um den Sinn und das Phänomen „Religion“ zu verstehen müssen wir einen Augenblick auf archaische Gesellschaften, in denen Religion das Selbstverständliche ist, so selbstverständlich dass man meist keinen besonderen Begriff für das hat, was heute allgemein mit dem aus dem römischen Staatsrecht stammenden, von allen Kulturen übernommenen Begriff „Religion“ meint.

„Amandla, amandla“ skandierten die Zulus auf ihren Protestmärschen gegen das Apartheitsregime in Südafrika am Ende des vorigen Jahrhunderts. Das rufen sie auch, wenn sie Fußballmannschaften anfeuern wollen. Sie greifen dabei auf ein Lebensgefühl der Gemeinschaft zurück, das zentral für die Religion ist, die Lebenskraft. Alle partizipieren daran. Die Lebenskraft kann abnehmen, oder zunehmen. „Amandla“ ist Macht, Kraft, aber auch Tapferkeit, Macht, Weisheit und Cleverness, kurz alles, was man braucht, um das Leben bestehen zu können. Menschen in hervorgehobener gesellschaftlicher Position besitzen sie in höherem Maße, der erfolgreiche Familienvater, der Stammesälteste, der König. Status und Macht werden nicht in Frage gestellt. Religion und Gesellschaft, religiöser und gesellschaftlicher Bereich sind hier nicht getrennt. Schwächt sich die Lebenskraft und der Mensch wird krank, geht man zum Mediziner, zum Diviner und bringt Opfer, wenn das erforderlich ist.

Die Lebenskraft ist faktisch das Zentrum aller primären, ursprünglichen Religionen.

Woher sie kommt, wird nur selten reflektiert. Sie ist da. Sie kommt von den Eltern, den Ahnen. Das zu wissen allein ist wichtig. Die Ahnen, auch die Geister, von denen man in Natur und Lebenswelt umgeben ist, kann man durch Gebete, Opfer, Riten und Prozessionen beeinflussen, gerade dann, wenn die Lebenskraft in Gefahr steht, mißbraucht zu werden. Das kann geschehen durch einen Zauber von Hexen oder „Neidlingen“, also neidischen Menschen, die dem anderen Böses antun wollen und ihn verwünschen. Letztendlich aber kommt die Kraft von Gott, dem uralten, an den man sich

“종교”의 의미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깐 동안 만이라도 원시사회들, 즉 종교가 너무도 당연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마제국의 법, 특히 문화적인 것들로부터 받아들인 “종교”라는 개념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어지는 종교적인 면을 상정해 볼 필요가 있다.

“아만들라 아만들라(Amandlaa, amandla)”는 지난 세기 말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에 대한 항의 행진에 쥘루인들(die Zulus)이 외쳐 부르던 함성이다. 그들은 축구팀을 응원할 때도 이것을 외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종교와 “삶을 살게 하는 힘”(생명력, Lebenskraft)의 중심이 되는 사회공동체의 생명 감각(Lebensgefühl)을 공유한다. 모든 남아프리카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자가 된다. “삶을 살게 하는 힘”은 줄어 들 수도 또 늘어날 수도 있다. “아만들라”는 권력이고, 힘이고 그리고 또한 지혜이며 영특함이며,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 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 즉 성공한 가장, 부족의 족장, 왕들은 더 큰 틀에서 그것을 소유한다. 지위나 권력이 여기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종교와 사회, 종교적인 것과 사회적인 영역이 구분이 없다. 생명력이 약해지고, 병이 들면, 사람들은 마술사나 점쟁이에게 찾아가고 필요 하다면 제물을 바친다. 생명력은 사실상 모든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종교들의 중심이다.

어디에서 이 생명력이 오는지는 아주 드물게만 드러난다. 그 생명력은 실제하고, 그것은 부모로부터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온다.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중요하다. 만일 생명력이 위기에 처해있거나 함부로 사용되어질 경우에는 사람들은 자연과 생명세계를 감싸고 있는 조상신들과 영들에게 기도, 희사, 제의 또는 성지순례 등을 통하여 영향을 행사 할 수 있다. 이것은 마녀나 또는 “심술쟁이 마법사”, 즉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기 원하고 욕망을 부추기기 원하는 사람들의 주술을 통해 일어난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생명력으로서의 힘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하나님, 즉 아주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만 찾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도로 만나기에는 너무 위대하고 멀리 있다.

이러한 종교에 관한 기본모델은 모든 원시적인 작은 사회에서 여러 가지 변형된 모습 (예: 샤머니즘)으로 나타나는데, 이것들은 오늘날 일상적인 개념으

aber nur in der äußersten Not wendet. Er ist zu mächtig und zu fern, als daß ihn wirklich Gebete erreichen.

Dieses Grundmuster von Religion findet sich in vielerlei Abwandlungen (wie z.B. im Schamanismus) in allen archaischen Kleingesellschaften, ohne dass diese Abhängigkeit von transzendenten Mächten mit dem heute üblichen Begriff „Religion“ benannt wird.

Macht, Gewalt

Dieses Lebensgefühl, diese Abhängigkeit von transzendenter Macht und Kraft, revitalisieren die Pfingstbewegungen, jedoch mit dem wichtigen Unterschied, dass nicht mehr die Ahnen oder Geister angerufen und um Hilfe gebeten werden, sondern Gott, der allmächtige. Er ist nahe im Heiligen Geist und Gebete erreichen ihn. Er wird sie erhören und „Leben, Leben die Fülle“ (Joh.10, 11) schenken. Dies ist ein zentraler Glaubenssatz für alle Pfingstbewegungen, in welcher Gestalt sie auch in der Öffentlichkeit auftreten, als Heilungsbewegung, als „Prosperity Church“. Sie wollen das Leben stärken, leiblich. Auch wenn es geistlich gewonnen wird, bezieht sich das Versprechen auf Steigerung der Lebenskraft nicht nur auf den Körper, die Gesundheit, sondern auch auf das soziale Umfeld, die Familie, die Gemeinschaft. Reichtum, eine höhere Position in der Gesellschaft gehören dazu und sind erstrebenswert. Prosperität ist sichtbares Zeichen der Zuneigung Gottes. Eine Leserzuschrift in Namibia bringt es auf den Nenner: „Früher hatte ich Alkohol, jetzt gab mir Jesus Möbel“!

Jeder Einzelne ist angesprochen. In der Hand und dem Leben eines jeden liegt es, ob man Erfolg haben wird oder nicht. (In den USA führt das zu einem von der Religion abgesicherten und unterstützten Kapitalismus). Ein strikte Lebensführung wird erwartet, Abweichungen werden streng geahndet, mit drakonischen, geistlich-fundamentalistischen Strafen.

Sozialer Aufstieg und wirtschaftlicher Erfolg haben jedoch ambivalente Aspekte: Der Individualismus hat den Egoismus zum Zwillingsbruder.

로 “종교”라고 불려지는 초월적인 힘과는 무관하다.

권력, 폭력

이러한 생명감각(Lebensgefühl)과 초월적 권력과 능력(힘)에 대한 의존성은 오순절운동을 부흥시키지만, 그것은 더 이상 조상신을 부르고 도움을 받기 위해 기도하지 않으며 다만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서 다른 것과 차이를 드러낸다. 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가까이 존재하고 기도를 통하여 만나진다. 그 하나님은 믿는 이들을 들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충만하게 함” (요 10:11)을 선사한다. 이것은 모든 오순절운동의 핵심을 담은 신앙고백으로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던지 치유 운동과 “번영하는 교회”로 보여지는 것과 같다. 그들은 생명(삶)을 강하게 함, 즉 육신의 강건함을 원한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영적으로 충만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약속은 생명력의 상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육체와 건강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 가족과 공동체의 상승과 연결되어 있다. (경제적인)부와 사회에서 더 높은 자리를 얻는 것 같은 것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이다. 번영은 하나님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는 눈에 보이는 표식이다. 나미비아에서 온 다음과 같은 독자의 편지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나는 전에는 알코올(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는 나에게 가구(부유함의 상징)를 주었다.”

각각의 개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자기에 대한 말로 듣는다.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성공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가 각 개인들의 손에 놓여있다고 본다(미국에서는 이것이 사람들을 종교에 의해 보호되고 지지되는 자본주의로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 하나의 엄격한 생활방식이 기대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엄격하게 처벌되는데, 이는 드라콘(성문법, 율법)식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철저한 근본주의적으로 처벌된다.

사회적 상승 및 경제적 성공은 항상 양가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개인주의는 이기심을 쌍둥이 동생으로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근본주의에서 알고 있는 것이기에 그러므로 이는 엄격한 윤리를 통해 여과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국가의 법이 보다 더 강화되어지길 요구한다. 사형제 폐지는 폐지된 곳에서 다시 시행되어야 한다. 청교도적 성윤리가 다시 등장한다. 사회적

Das weiß man im Fundamentalismus, darum wird er durch eine rigorose Ethik kanalisiert. Man fordert, daß die Gesetze des Staates verschärft werden. Die Todesstrafe muß wieder eingeführt werden, wo sie abgeschafft war. Eine puritanische Sexualethik wird vertreten. Soziale Verpflichtungen, festgesetzte Abgaben für die Kirche bzw. die Bewegung sind Selbstverständlichkeiten.

Die modernen Medien werden mit sicherer Hand instrumentalisiert, z.B. für die missionarische Ausbreitung. Zugleich nehmen sie eine effektive Kontrollfunktion ein. Eine solche Fülle von Kontrollmechanismen werden entwickelt, so daß man den Fundamentalismus durchaus als eine Kontrollbewegung verstehen kann, die psychische, aber auch physische Druck auf ihre Mitglieder ausübt, sie unterdrückt.

Zum Glaubensinhalt, den man glauben muß, gehören vier „fundamentals“:

1. Der Glaube an die Jungfrauengeburt Jesu. Dogmatisch gesprochen soll sie die Gottessohnschaft Jesu absichern und besitzt wie im Katholizismus einen hohen Stellenwert. Sie ist eine wesentliche Stütze der antisexuellen Moral und befestigt die patriarchalische Familienordnung.

2. Der Glaube an die Gottheit Jesu ist die Grundlage für die die vollkommene Satisfaktion des Menschen. Als gerechtfertigtem Sünder stehen dem Menschen die Tore des Glücks und Reichtums offen.

3. Der Glaube an die leibliche Wiederkunft Christi ist die Basis dafür, schon hier sich für das Reich Gottes einzusetzen, bis Jesus hier auf Erden sein 100jähriges Reich aufrichten wird.

Mit diesen drei „fundamentals“ bewegt sich die Pfingstbewegung im Rahmen evangelischer konservativer Theologie, abgesehen davon, mit welcher Rigorosität man darauf insistiert, daß sie für jeden die Voraussetzung dafür sei, von Gott akzeptiert und gesegnet zu werden.

안전망, 교회나 다른 단체들에 대한 고정된 부과금은 당연시된다. 현대의 대중매체는 선교의 확장과 같은 것들을 안정적으로 체계화하였다. 동시에 그들은 하나의 효과적인 제어기능을 받아들였다. 하나의 이러한 과도한 제어시스템은 발전되어서 사람들이 근본주의를 철저히 하나의 제어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것은 그 구성원들을 신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압박하였고 사람들을 억눌렀다.

사람들이 믿어야만 하는 믿음의 내용들은 다음의 4 가지 “근본적인 것”들을 포함한다.:

1. 예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믿음.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성자)임을 확증해주고 가톨릭 같은 곳에서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것은 반(反) 성적인 도덕의 근본적인 지지이고, 가부장적인 가족 질서를 고착화한다.
2. 예수의 신성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완전한 만족을 위한 근거이다. 의로워진 죄인으로서, 인간에게 행복과 부의 문이 열려 있다.
3. 그리스도의 육체적 도래에 대한 믿음은 이 지상에 예수의 100 년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기초가 된다.

이 세 가지 “근본주의 적인 것”들을 통해 오순절 운동은 개신교의 보수적 신학의 틀 안에서 작용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을 채웠는지와는 별개로 일어난다.

넷째 원리는 성경에 대한 문자영감성과 무오성 그리고 성경의 모순불가성이라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다. 성서는 “실제사건의 책”이다.

이 원리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시대에 이러한 오순절 운동이 이 정도로 호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모든 개인이 예외 없이 겪어야 하는 다문화, 다정치적 불확실성에 살고 있다. 지금까지의 사회적 관계나 지켜온 관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Der 4. Grundsatz, die Verbalinspiration, Irrtumslosigkeit und Widerspruchsfreiheit der Bibel ist der entscheidende. Die Bibel ist „a book of facts“.

Warum ist gerade dieser Grundsatz so wichtig? Was macht diese Bewegungen in unserer Zeit so attraktiv?

Wir leben in einer Zeit multikultureller, multisozialer, und multipolitischer Unsicherheiten, denen jeder einzelne Mensch ausgesetzt ist. Die bisherigen sozialen Bindungen, überkommene Gewohnheiten gelten nicht mehr.

Unübersichtlichkeit, Unsicherheit verängstigen den Menschen. Er sucht nach einem neuen Gehäuse, in dem er sich wohl und sicher fühlen kann. Die Unübersichtlichkeit soll durch Eindeutigkeit überwunden werden. Das bezieht sich zunächst auf die ethisch –geistliche Grundlage, den biblischen Text. Der im biblischen Kanon festgeschriebene Pluralismus,(vier Evangelien und nicht eins, wie der Islam behauptet) der durch die moderne historisch–kritische Auslegung noch verstärkt wird, wird abgelehnt. Die Aussagen der Bibel sind eindeutig und unerschütterlich fest. Eindeutigkeit wird erzielt. Dem dient an erster Stelle der Glaube an die Verbalinspiration der Schrift. An diesem Maßstab wird die Rechtgläubigkeit gemessen.¹⁾ Hier ist das Kriterium, nach dem die Mitglieder der Bewegung be- und verurteilt werden. Der christliche Fundamentalismus ist gegenüber seinen Anhängern rigoros im Urteil. An dem Streit, wer rechtgläubig ist oder nicht, sind schon manche Gemeinden zerbrochen.

Verschärft gilt das Gleiche für den Islam: Der koranische Text , so heißt es, ist von jeher bei Gott und Stück für Stück an Mohammed herabgesandt. Jedes Wort im Koran ist heilig, stammt wortwörtlich von Mohammed und geht auf Gottes Inspiration zurück. Wie Jesus nach christlicher Lehre Mensch und Gott, „unvermischt und ungetrennt“ ist, so gilt das Gleiche vom Koran.

1) So ist es mir vor Jahren in einem koreanischen Seminar der Pfingstkirche ergangen. Meine Andacht wurde als vom Geist inspiriert akzeptiert, doch als es in der späteren Diskussion um die Verbalinspiration ging, wurde ich von amerikanischen Pfingstlern schnell als ungläubig angesehen, weil ich sie als solche nicht akzeptieren kann und für unbiblisch halte.

모호함과 불안은 사람들을 더 소극적이 되게 만든다. 이러한 경향은 사람들에게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거처를 찾게 만든다. 확실성의 결여는 분명함으로 극복될 것이라 믿는다. 이 분명함은 먼저는 윤리적이고 영적인 근거로서 성경 본문과의 관계에서 생겨난다고 본다. 오늘날 역사-비평적인 성서주석으로 더욱 분명해진 성서의 정경 안에서 드러나는 다원주의(즉 이슬람이 주장하듯 하나의 복음서가 아니고 4 개의 복음이라는 4 복음서!)는 거부되어진다. 성경의 진술은 분명하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다. 분명함이 이룩되었다. 여기에 성경의 문자영감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큰 몫을 담당한다. 바로 이러한 척도가 참 믿음으로 평가된다.²⁾ 여기에서의 평가의 기준은 다름 아닌 그 운동의 멤버들이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에 따라 결정되어 졌다. 기독교 근본주의는 피도 눈물도 없이 자기들의 추종자들을 심판한다. 누가 정말로 바른 믿음을 가졌는가에 대한 논쟁은 수많은 교회 공동체를 망가트린다.

법이 강화되어지는 것은 이슬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꾸란 텍스트는 처음부터 알라(하나님, 이슬람의 신에 대한 이름이 알라이기에 여기서는 하나님을 알라로 고쳐서 쓴다)와 함께 있었고, 한자 한자가 다 모하메드에게만 전해 졌다. 꾸란의 모든 단어는 기록하고, 글자 하나 하나가 다 모하메드에게서 오고, 이것은 알라의 영감에 기인한다. 기독교 교리에 따라 예수는 “혼합되지도 분리되지도 않는다.”는 것은 꾸란에서도 똑같다.

역사적으로 꾸란은 처음에는 여러가지 버전들이 존재했다. 그것도 원래 꾸란은 분음 부호나 보컬 표시가 없기에 히브리어 성서처럼 상이한 사본들이 존재한다. 다양한 꾸란버전들은 칼리프 우트만(650년 및 656년 사이) 시절에 하나로 모여졌고, 마침내 이라크의 지도자 알 하그 (694~717)에 의해서 정경으로 확정되었다. 그것은 그가 정의한 통합의 틀 안에서만 유효 하며, 따라서 그것만이 기도예식서로 인용된다. 꾸란 안에서의 확고한 선명성이 달성되었다. 누구든지 정경화된 꾸란이나 그 기록성을 의심하면, 이는 이교도로

2) 이것이 내가 지난 몇 년 전, 한국의 오순절 교회의 세미나에서 경험했던 것이다. 내가 드린 예배는 영적인 영감을 받은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이어지는 토론에서 문자영감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비성서적이라고 하자, 미국의 오순절 교 사람들은 나를 너무도 간단하게 비 신앙적인적으로 평가하였다.

Historisch gesehen gab es anfangs verschiedene Versionen des Koran. Da er ursprünglich ebenso wie die hebräische Bibel weder diakritische noch Vokalzeichen besaß, gab es unterschiedliche Lesarten. Die verschiedenen Koranversionen wurden erst unter dem Kalifen `Utman (zwischen 650 und 656) vereinheitlicht und endgültig unter dem Statthalter des Irak al Hagag (694 – 717) festgelegt. Sie besitzt in der von ihm festgelegten Einheitsform allein Gültigkeit und wird so in den Gebetsriten zitiert. Die erzielte Eindeutigkeit ist erreicht. Wer sie und ihre Göttlichkeit infrage stellt, gilt als Häretiker und kann mit dem Tode bestraft werden.

Hier trennen sich nun die Wege des christlichen und islamischen Fundamentalismus.

Die Trennung von Staat und Religion ist ein Grundsatz christlicher Ethik, die auf Jesus zurückgeht: „Gebt dem Kaiser was des Kaisers ist und Gott was Gottes ist“ (Matt. 22, 21), auch wenn die Kirche sich im Laufe der Geschichte nicht immer daran gehalten hat. Die Trennung ist rechtlich bindend. Die Gewalt ist Gottes, allein dem Staat ist die Macht zuerkannt, für Recht und Ordnung Sorge zu tragen (Röm. 13). Im Islam ist diese Trennung nicht gegeben. Der Einheitsgedanke beherrscht alles: Ein Gott, ein Gesandter, ein Koran, eine Gemeinde! Die Religion ist die Grundlage der Ethik des Staates. Nur in einem islamischen Gemeinwesen, so die Überzeugung, kann der Muslim seinen Glauben richtig leben. Deshalb regelt der Koran unterschiedlos und gleichzeitig die politische und religiöse Ordnung. Letztendlich ist diese Ordnung für die ganze Welt bestimmt. Die Unterteilung der Welt in „Haus des Krieges“ und „Haus des Friedens“ dient diesem Zweck. „Haus des Krieges“ meint nicht, dass die Welt außerhalb des Islam erobert werden müßte – Islamisten sind jedoch davon überzeugt – sondern dass das Streben aller Muslime so oder so dem dienen muß, der ganzen Welt den islamischen Gottesfrieden zu bringen.

Der Islam ist seinem Wesen nach eine missionarische Religion. Die vielfältigen Mittel haben das Ziel, die Welt islamisch zu machen. Der Krieg ist eine Möglichkeit, die in der Frühzeit des Islam reichlich genutzt wurde.

판정되고 죽음으로 처벌 될 수 있다.

여기서 기독교와 이슬람 근본주의의 길들이 나누어진다.

국가와 종교의 분리는 예수에게서부터 유래되는 기독교 윤리의 기본 원칙이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마 22:21), 비록 교회가 그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항상 준수 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분리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폭력은 하나님의 것이고, 국가에게는 법과 질서를 염려하는 힘을 주었다(롬 13). 이슬람에는 정교 분리가 없다. 일체 또는 하나에 대한 생각은 모든 것을 지배한다: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의 꾸란, 하나의 공동체! 종교는 국가 윤리의 기초이다.

오직 단 하나의 이슬람 공동존재라는 확신으로 하나의 모슬렘은 자기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다. 그러므로 꾸란은 어떠한 구별도 없이 그리고 시간적인 차이도 없이 모든 이에게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질서를 조정하는 근거가 된다. 중국에는 이 모든 질서가 전 세계에 유효하다. 세상을 “전쟁의 집”과 “평화의 집”으로 구분하는 것도 이러한 목적에서이다. “전쟁의 집”은 세계가 이슬람 외에는 모두 정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하지 않고 - 하지만 모슬렘들은 이것을 확신 하고 있다 - 오히려 무엇을 하던지 온 세상에 이슬람적인 알라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위해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슬람은 본질적으로 선교의 종교이다. 다각적인 수단들은 전 세계를 이슬람화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전쟁은 이슬람 초기에 널리 사용되어졌던 가능성이다. 종교와 권력 사이의 긴밀한 연결은 급진적인 행동을 용이하게 만든다. 정치적 급진주의는 모든 면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이슬람 종교의 핵심을 왜곡시킨다.

꾸란 텍스트의 실제 해석은 전통적으로 법률학자들의 몫이다. 그들은 심판을 해야 하고, 불경함과 맞서 싸울 적법성을 결정하는 fatwa(파트와는 이슬람 학자가 이슬람법에 대하여 내놓는 의견이다. 파트와는 법적인 판결이 아닌 종교적인 의견이지만, 몇몇 나라에서는 법 이상의 권위를 갖고 있다. 파트와는 꾸란과 샤리아에 입각하여 결정된다.)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지나간 세기 초

Die enge Verknüpfung von Religion und Macht erleichtert das radikale Vorgehen. Der politische Radikalismus verfremdet den Kern der islamischen Religion nicht, auch wenn er nicht von allen Seiten abgesichert ist.

Die eigentlichen Interpreten des koranischen Textes sind in der Tradition die Rechtsgelehrten. Sie müssen ein Urteil abgeben, eine Fatwa erstellen, die die Rechtmäßigkeit des Kampfes gegen die Ungläubigen feststellen. Das hat sich Anfang des vorigen Jahrhunderts radikal verändert. Wortführer dafür waren die „Muslim Brüder“ in Ägypten. Sie nahmen sich das Recht, daß jeder Einzelne den Koran auslegen und die Rechtmäßigkeit einer Regierung beurteilen kann und soll: Lebt sie in seinen Augen nicht nach islamischen Recht, kann sie als „ungläubig“ eingestuft werden. Der Kampf gegen sie wird dann ein Kampf gegen „Ungläubige“, auch wenn diese Muslime sind. Er findet seine Rechtfertigung im Koran. Die ganze Gemeinde ist nun zum „dihad“ zum Heiligen Krieg aufgerufen.

Diese Haltung nimmt konsequent der Islamismus ein, besonders die Anhänger des IS, des islamischen Gottesstaates. Alle seine Aktionen sind gegen die Feinde des Islam, gegen Ungläubige gerichtet: Die Terroraktionen in den Philippinen, in Ägypten, Deutschland oder Sri Lanka. Man will mit diesen Aktionen die „Gottesfeinde“ strafen oder sie zu solchen Reaktionen anstacheln, dass sie zum Gegenangriff übergehen. Denn dann ist die ganze islamische Gemeinde verpflichtet, in den djihad zu ziehen. Oder die Terroraktionen destabilisieren die Ordnung des fremden Staates soweit, dass die Menschen zur Annahme des Islam bereit sind, sie Muslime werden und aus dem „Haus des Krieges“ ein „Haus des Friedens“, also ein islamischer Staat wird. Wie solch ein Staat, in dem Religion und Gewalt/Macht nicht getrennt sind und die Gesetze gemäß der Scharia eingeführt sind, aussieht, kann man an dem mit Autorität geführten Saudi-Arabien sehen.

Es gibt viele Muslime, die lieber in einem freien Europa leben, der ihnen die Ausübung ihrer Religion erlaubt, als in einem solchen muslimischen Staat, wo die Menschenrechte mißachtet werden.

에 아주 급진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은 이집트에서 일어난 “무슬림 형제들”이었다. 그들은 각 개인이 꾸란을 해석하고 정부의 적법성을 평가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만일 그들의 눈에 정부가 이슬람법에 따라 살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면, 그들을 “불신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한 싸움은 그들이 비록 무슬림일 경우 에라도 “불신자들”에 대한 싸움이 된다. 그들은 자신의 정당성을 꾸란에서 발견한다. 이제 온 회중은 성전 “지하드”로 부름 받는다.

이러한 태도는 이슬람주의자들 특히 이슬람신정국가를 꿈꾸는 ISIS 의 추종자 에 의해 꾸준히 행동으로 옮겨진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이슬람의 원수들과 불신양인에게 맞추어져 있다: 이것들은 필리핀, 이집트, 독일 또는 스리랑카 에서 자행한 테러 행동들이다. 그들은 이러한 그들의 행동들을 통해 “알라의 원수”를 처단하거나 그들에게 반격을 유도하여 선동하려 한다. 왜냐하면 전체 이슬람 공동체는 성전인 “지하드”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는 이들의 테러 행위는 사람들이 이슬람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다른 나라 의 국가 질서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모슬렘이 되어 “전쟁의 집” 이 이슬람 국가인 “평화의 집”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종교와 폭력/권력이 분리 되지 않고 샤리아에 따라서 법이 적용되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그러한 권위가 인정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많은 모슬렘들이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이슬람 국가에서 살기보다는 그들의 종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나 자유로운 유럽에 살기를 선호한다.

자살 테러는 이러한 과격한 근본주의자들의 모습을 담은 극심한 근본적인 측면이다. 자살은 이슬람에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의 싸움에서 이러한 자폭행위는 성전에서의 죽음으로 추앙된다. 지하드로 죽는 사람들은 심 판대에 서지 않고 즉시 낙원에 가서 거기서 제공되는 향락을 즐길 수 있다! 고 꾸란이 말한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이슬람의 알라의 이미지와 일치할 수 있을까? 꾸란은 알라의 선함과 자비에 대하여 인상적으로 말한다. 그러나 많은 진술들이 그의

Die Selbstmordattentäter sind ein extremer Aspekt dieses radikal fundamentalistischen Ansatzes. Selbstmord ist im Islam verboten. Doch diese Selbstmordattentate im Kampf gegen die Ungläubigen gelten als Tod im Heiligen Krieg. Wer im djihad stirbt, sagt der Koran, kommt nicht ins Gericht, sondern geht unmittelbar ins Paradies und darf die dort gebotenen Freuden genießen!

Wie sind diese Überzeugungen mit dem Gottesbild des Islam vereinbar? Der Koran spricht eindrücklich von der Güte und Barmherzigkeit Gottes. Aber ebenso viele Aussagen sprechen von der Härte seiner Gewalt und richterlichen Strenge, ja Willkür, die aber immer als „gerecht“ deklariert wird. Das wirkt sich bis in die Erziehung der Kinder aus, bei der Gewalt nicht ausgeschlossen ist, so daß nach einigen Rechtsschulen Jungen selbst unter Androhung von Strafe zum Gebet und zum Moscheebesuch gezwungen werden dürfen.

Toleranz

Wie gehen wir in der Begegnung mit den uns fremden Religionen um? Bei vielen steht die Bereitschaft zum Dialog im Vordergrund.

Es ist keine Frage, dass man dem „weichen“ Fundamentalismus frei und offen begegnen kann und muß. Er ist eine klare Herausforderung an die etablierten Kirchen, deutlicher ihren Glauben zu leben und sich nicht seiner zu schämen, wie das besonders im „alten Europa“ der Fall ist.

Der Dialog ist nötig. Doch sollte man zwischen einem Informations-, einem ethischen Dialog und einem Konsensdialog deutlich unterscheiden. Die beiden ersten sind für das Zusammenleben notwendig, denn wir brauchen die gegenseitigen Informationen über den jeweils anderen Glauben. Und wir brauchen einen ethischen Austausch, sonst ist ein Zusammenleben im Gemeinwesen nicht möglich. Im Blick auf den Konsensdialog, den besonders Theologen im Blick haben, wenn sie von Dialog sprechen, bin ich höchst skeptisch. Meine Erfahrung ist, dass man den ausblenden soll, wenn es um den Dialog mit Muslimen geht. In den jahrelangen Gesprächen, die ich vor Ort und in der Al Azhar Universität in Kairo geführt habe, stellte ich fest:

폭력과 법적인 엄격함, 심지어는 항상 “정의로운”이라는 말로 포장된 임의성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어린아이들의 교육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그들이 폭력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어서 몇몇의 (이슬람)법률 학교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기도하고 모스크를 방문하도록 강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용

우리는 그러면 이방 종교들과의 만남을 어떻게 하고 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와의 대화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다.

두말할 필요없이 사람들은 “유연한” 근본주의와는 자유롭고 열린 마음으로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야 한다. 이러한 것은 기성교회에게는 분명한 도전인데, 그들이 옛날의 유럽의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그들의 신앙에 따라 철저하게 살아야 하고 또 자신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만 정보를 교환하는 대화와 윤리적인 대화 그리고 합의를 도출해내는 컨센서스 대화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 처음의 두 가지 대화는 서로의 공존을 위해서 필연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다른 신앙에 대한 그때그때의 상호간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윤리적 교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공동체 사회에서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하지 못하다. 대화에 관해 이야기할 때, 특별히 신학자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컨센서스 대화에 관해서 본인은 매우 회의적이다. 내 경험상, 만일 무슬림과의 대화에 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면 차라리 그냥 모른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본인이 이슬람의 삶의 현장에서, 또 카이로의 알 아즈하르 대학에서 수년간 대화를 하며 분명해 진 것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인들은 상대를 청중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의 의견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만, 무슬림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무슬림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앙으로 조금도 변할 가능성이 없고, 자기들은 참된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기독교인의 것을 상속 받았고 꾸란의 지적에 따라 기독교인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Christen sind bereit zu hören und auf Argumente einzugehen, die Muslime nicht. Sie sind unwandelbar davon überzeugt, sie haben die wahre Religion und beerben die der Christen und korrigieren deren Fehler, die der schon Koran aufzeigt.

Der Dialog ist nur ein, wenn auch wichtiger Aspekt der Verwirklichung von Toleranz, denn er setzt die gegenseitige Bereitschaft zum Gespräch voraus. Die ist aber nicht überall gegeben. Z.B. der Islam, der je nachdem in sanfter oder aggressiver Weise nach innen in der Familie und nach außen im Gemeinwesen auftritt. Wie gehen wir damit um?

Toleranz und Intoleranz sind untrennbare Schwestern. Die eine ist ohne die andere nicht zu haben. Der Grundsatz gilt: Gegen Intoleranz sind wir intolerant! Intoleranz können wir nicht tolerieren. Gegen Terrorakte muß sich die Gesellschaft wehren, mit staatlicher Gewalt, jedoch nicht mit religiöser. Das macht den Unterschied zwischen einem demokratisch regierten und einem autokratisch regierten Land aus. Auf die Terrorakte In Sri Lanka rief die Öffentlichkeit unmittelbar nach Rache. Der Priester der betroffenen Kirche aber sagte im Fernsehen sehr engagiert: Wir wollen nicht Rache, sondern Versöhnung!

Wir müssen zwischen einer *Toleranz nach innen* und der *Toleranz nach außen* unterscheiden. Am Beispiel des Lebens in einem Kloster, buddhistisch oder katholisch, kann der Unterschied verdeutlicht werden: Nach innen herrscht deutliche Zucht. Verfehlungen werden nicht toleriert. Was aber drau ß en passiert, welche Religion dort dominiert, dem begegnet man mit großer Toleranz. Diese großherzige Toleranz grenzt an Gleichgültigkeit.

Wir können auch das Beispiel des Familienlebens herausgreifen: Wo die Religion zentrale Lebensmitte ist, wie z.B. in einer durch pietistische Frömmigkeit geprägten oder in einer frommen islamischen Familie, wird abweichendes ethisches Verhalten nicht toleriert. Aber gegenüber der eigenen Religion ist man nicht gleichgültig, noch viel weniger wird ein Religionswechsel toleriert.

대화는 관용의 실현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의 방편인데 그것은 대화를 위해 서로의 준비가 전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모든 곳에서 일어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이슬람은 온화하거나 공격적인 방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화가 일어나는 데 내부적으로는 가족 내에서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자기 동네에서 발생한다. 우리는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관용과 불관용(편협)은 불가분의 자매이다. 하나는 다른 하나 없이 있을 수 없다. 원리는 다음과 같다: 불관용에 대하여는 불관용으로! 우리는 불관용에 관용할 수 없다. 사회공동체는 테러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데 이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국가적 폭력으로 대항해야 한다. 이는 민주적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와 독재가 다스리는 나라 간의 차이를 만든다. 스리랑카의 테러 행위에 대해 대중은 즉시 복수를 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교회의 사제는 텔레비전에 매우 강하게 말했다: 우리는 복수가 아니라 화해를 원한다!

우리는 내부를 향한 관용과 외부로 향한 관용을 구분해야한다. 수도권 생활, 불교적으로 또는 가톨릭적으로 사는 삶의 예에서 그 차이를 설명 할 수 있다: 내부에는 명확한 변식이 있다. 부족함은 관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어떠한 종교가 거기를 지배하는가에 따라 커다란 관용을 만나볼 수 있다. 이러한 관대한 관용은 무관심과는 구분된다.

우리는 또한 다음과 같은 가정생활의 예를 선택할 수 있다: 어디든 종교적 경건과 경건한 이슬람 가정에서와 같이 종교가 삶이 중심이 되는 곳에서는 비정상적인 윤리적 행동은 관용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에 관하여는 무관심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다른 종교로의 개종에 대하여는 그렇게 관용적이지 않다.

현대와 같이 개인주의가 일반적이고 또 강하게 영향을 받은 사회에서는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종교적인 행동에서 좀 더 쉽게 벗어나고 있는데(이들에게는 더 이상 진리에 대한 질문은 중심이 아니다), 이는 특별히 요즘의 이슬람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뿐만 아니라 합의와 적합성에 관한 윤리와 사회적 행동에 대한 질문이 중요한 곳에서는 다 그러하다. 그러한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die stark dem Individualismus verpflichtet und von ihm geprägt ist, gibt man heute leichter dem abweichenden religiösen Verhalten der jungen Menschen nach (die Wahrheitsfrage ist nicht mehr zentral), insistiert aber besonders im Islam, jedoch nicht nur dort, in Fragen der Ethik und des gesellschaftlichen Verhaltens auf Konsens und Konformität, da beides den Zusammenhalt der Familie nach außen demonstriert und dem gesellschaftlichen Ehrenkodex entspricht. Das ist in der islamischen Gemeinschaft besonders wichtig ist. Ein sexuelles Fehlverhalten z.B. wird in islamischen Familien nicht toleriert und kann mit dem Ehrenmord bestraft werden.

Dieses Beispiel ist macht das eigentliche Problem akut: Wie gehen wir in unserer pluralistischen Gesellschaft in der Begegnung mit anderen Kulturen und Religionen um. Ein toleranter Umgang ist nicht selbstverständlich und muß gelernt werden. Eine extreme Toleranz ist unangemessen, weil sie – wie gesagt – Gleichgültigkeit signalisiert. Der andere darf mir nicht gleichgültig sein. Der andere Glaube, die anderen Gewohnheiten sind mir fremd, aber dürfen mir nicht gleichgültig sein, sie gehen uns etwas an. Wir brauchen in der Begegnung mit dem Fremden eine *konstruktive Toleranz*, wie sie gelegentlich genannt wurde. Das meint, daß ich dem mir Fremden zunächst mit *Respekt* begegne und seine Andersheit anerkenne. Ich gestehe dem andern zu, er selbst zu sein. Ich messe ihn nicht nach meinen Maßstäben, sondern respektiere, d.h. toleriere das. Das mag schmerzlich sein, weil die Kleidung, das religiöse Verhalten, die Glaubensüberzeugungen nicht nur mir fremd sind, sondern mich stören: die andere Kleidung (Kopftuch), das andere Benehmen, die andere Hautfarbe, der andere Körpergeruch. Das zu tolerieren verlangt Ichstärke und ist ein Zeichen eines freiheitlichen Umgangs miteinander. Den anderen in seiner Ordnung, Kultur, seinem Recht und seiner Moral anzuerkennen, erfordert eine große Gewissheit in dem, was man selbst lebt und liebt und in dem man sich zuhause fühlt.

Hier ist gegenseitige Toleranz erforderlich. Trägt der andere sein Anderssein aggressiv vor und verlangt, daß ich mich dem füge oder gar übernehme,

사회는 대부분 위의 두 가지(합의와 적합성) 모두가 외부에 가족의 응집력을 보여주고 사회의 명예의 코드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슬람 공동체에게는 특별하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성적 부정행위는 이슬람 가족에게 관용 되지 않으며 명예 살인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예는 본질적인 아주 급박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만든다: 우리는 우리의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른 문화와 종교와의 만남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관용적인 환경은 당연하지 않고 반드시 배워야 한다. 극단적인 관용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 말한 대로 - 그것은 무관심의 신호이기 때문이다. 타인은 나에게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다른 신앙, 다른 습관은 나에게 어색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무관심해서는 안되며 그들은 나와 무엇인가 상관이 있다. 우리는 때때로 명명하였듯이 낯선 사람과의 만남에서는 “건설적인 관용”이 필요하다. 이는 내가 먼저 낯선 사람을, 이방인을 존중 함으로 만나고 또 그의 다름을 인정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나는 그가 그 자신이 되도록 그를 인정해야한다. 나는 내 표준에 의해 그를 측정하지 않고, 그를 존중하고 즉 그가 가진 것을 관용한다. 그것은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일수 있다. 옷, 종교적인 행동, 신앙의 확신들은 나에게 어색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방해가 된다: 다른 옷(머리 스카프, 히잡), 다른 행동, 다른 피부 색깔, 다른 몸 냄새. 관용한다는 것은 나를 강화 하는 것을 요청하고, 서로에 대한 자유로운 환경을 만드는 표식이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질서에 문화에 자신의 법과 도덕 안에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는 자신이 살고 사랑하고 고향처럼 느끼는 것에 대한 대단한 확신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간의 관용이 필요하다. 낯선 사람이 자신의 낯섬을 공격적으로 들이밀고 심지어는 내가 그 다름을 채워주고 받아 들여 주기만을 원한다면 그것은 관용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 만남이 상호 공격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올바르게 반응하도록 하려면, 학교와 일자리에서 단지 손가락 끝으로만 느끼는 감각 정도는 넘어서야 한다. 이것은 진리에 대한 의문으로 종교들이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건설적인 관용이 추구하는 것은 정보 대화에 필요한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고, 관용이 받아들여지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sind die Grenzen der Toleranz überschritten. Hier richtig zu reagieren, so dass die Begegnung nicht zu gegenseitiger Aggressivität führt, verlangt gerade im schulischen Bereich und an den Arbeitsplätzen mehr als nur Fingerspitzengefühl. Das gleiche gilt in der Begegnung der Religionen, wenn die Wahrheitsfrage im Raume steht. Konstruktive Toleranz wird versuchen, den notwendigen ersten Schritt zu einem Informationsdialog zu machen und einen akzeptierten Raum für Toleranz zu schaffen.

Es ist keine Frage, daß eine solche konstruktive Toleranz letztlich nur in einer freiheitlichen, demokratischen Gesellschaft gelebt werden kann, kaum in einer autoritären Diktatur.

Aber auch in einer solchen Gesellschaft gilt Jesu Wort „du sollst deinen Nächsten lieben wie dich selbst“. Die Liebe sieht in dem anderen immer Gottes Geschöpf. Hier kommt die Toleranz zu ihrem Ziel. Hier ist die freie Haltung der Selbstzurücknahme erforderlich. Aber ist nicht die „freie Selbstzurücknahme um des anderen Willen“ (Wolfgang Huber) Erfüllung des Liebesgebotes Jesu?!

이러한 건설적인 관용은 궁극적으로는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사회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독재주의적 독재자에게서는 거의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 에서도 예수의 말씀 “너희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 하라”는 유효하다. 사랑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본다. 여기에 관용의 목표가 있다. 여기에 것은 “나의 스스로 한발 물러섬 (Selbstzurücknahme)”의 자유로운 태도가 요구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뜻을 위한 자유로운, 나의 스스로 한발 물러섬”(볼프강 후버)은 예수 사랑의 계명의 성취가 아닌가?!

소비자본주의 세계: 복음과 문화의 문제

양권석(성공회대학교)

1. 교회의 정치적 삶

교회는 그 자체가 미완의 프로젝트를 성취하도록 도구로 부름 받은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잠정적(provisional)이라고 말한다.¹⁾ 다시 말해, 하느님 나라의 완성과 함께 그 임무를 다하고 사라지거나,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그 나라 속으로 흡수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지상의 모든 가시적 교회는 종국에 자신이 사라질 것을 기대하며, 그 사라짐으로 완성될 나라를 향해 일하도록 부름 받은 공동체들이다. 교회의 잠정성에 대한 이 주장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교회가 자신의 현재를 결코 완성된 것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의미다.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멈출 수 없는 혁신의 과정 속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다.²⁾ 그래서 교회는 하느님의 선교에 진지하고도 겸손하게 참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하며 변혁해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교회의 잠정성 주장이 갖는 또 다른 측면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교회가 결코 그 자체로 완성될 수 없는 항구적 미완의 프로젝트 자체라면, 세계는 교회가 그 안에서 살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야하는 장소요 맥락이다. 이 세계 안에서 살면서, 그 세계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며 참여하도록 부른 공동체가 교회다. 따라서 교회와 세계의 관계는 언제나 비판적이고 변혁적이며 동시에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고,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 변화해 가겠지만, 동시에 세계는 특정한 관점 위에서 자신의 질서를 구성해 놓고, 변화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현재를 영구적으로 지켜내려는 속성을 갖는다. 때문에 교회는 세계를 향해서 비판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교회와 세계를 완전히 독립된 두 개의 영역으로 볼 수는 없다. 교회와 세계는 불가분리의 관계로 서로 묶여 있다. 교회는 세계 안에서 말하고 활동한

1) 교회의 잠정성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C. Duquoc, *Provisional Churches* (London: SCM Press, 1986).

2) Ibid., pp.90-91 을 참조하라. 듀콕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잠정성은 혁신의 조건이며, 지속적인 창조의 조건이며, 변화하는 상황들 속에서의 현존을 위한 조건이다; 그래서 잠정성은 특정 순간을 정지시켜 보려 한다든가, 양식들의 운동성을 멈추게 한다든가, 관계들을 끝내 사라질 수 밖에 없는 유한성(mortality)을 막아 보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관심과는 반대되는 것이다.”(91)

다. 교회가 어떤 희망이나 비전을 이야기하든지, 혹은 어떤 목적 의식적인 활동을 수행하든지, 언제나 세계 안에서 그 세계를 향해서 하는 것이다. 세계의 역사, 문화, 사회질서 안에서, 그리고 의미와 상징들의 질서 안에서, 그리고 그 질서의 변화를 위해서, 교회는 세상의 언어로 식별하고 선포하고 행동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선포와 선교활동은 역사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구체적으로 물질적이고 정치적이기 밖에 없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이 제공하는 의미나 가치 질서의 한계 안에 묶여 있는 공동체가 아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활동한다. 물론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지금의 세계가 제공하는 의미와 가치질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뜻은, 이미 세상과의 비판적인 거리를 전제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제공하는 의미와 가치의 질서에 대항해서, 그 질서 너머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를 세상을 향해 말과 행동으로 전해야 하는 특별한 사명의 공동체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지금의 삶의 세계 너머로부터 오는 목소리를 식별하고 그렇게 들은 메시지를 세상 안의 삶으로 실천해 내야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다.

그런데 세계 안에 있으면서, 세계 너머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교회의 말로 계시적 메시지를 듣는다는 말인데, 이는 교회 공동체의 해석과 식별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해석과 식별의 과정은 단순하고 직접적인 전달과 수용의 과정도 아니고, 즉시 확신을 심어 줄 수 있을 정도로 명료한 것도 아니다. 사실은 교회 내의 다양한 해석들이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식별과정이다. 때문에 해석과 식별의 과정 자체가 이미 바른 해석을 찾기 위한 비판적이고 정치적인 실천이다. 그런데 세계 너머로부터 오는 계시적 메시지를 찾는 해석과 식별들 안에는, 교회 안의 다양한 해석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종교 전통들의 해석들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해석들과 만나서, 때로는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또 때로는 갈등하고 대결하면서, 교회는 자신의 선포와 실천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세계 너머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듣고 식별하는 과정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 시대의 타당한 선교신학 혹은 정치신학은, 세 가지 방향에서 비판적 대화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첫째는 세계와의 비판적 대화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세계, 곧 우리 시대의 지구적인 삶이 지속시키고 있는 의미와 가치의 질서에 대해서, 그리고 그와 같은 의미와 가치질서를 뒷받침하고

있는 특정한 관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일이다. 지구화한 소비자본주의가 제공하고 있는 인간관과 세계관은 물론이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형이상학적인 토대에 이르기까지 깊이 검토하고 비판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교회 내의 다양한 해석들 사이에서 길을 찾는 노력, 곧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해석의 투쟁과 관련된 문제다. 교회와 세상이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만큼, 세상 너머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표현하고 설명하려는 모든 노력은, 기존의 세상 질서가 제공하는 언어나 상징들과의 일정한 공모관계 속에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떤 해석도 완전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세계 안에서 권력화한 교회와 종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권력과 질서를 강화하고 합법화하는 해석을 노골적으로 양산하고 있다.³⁾ 이러한 교회들의 세계 속에서, 책임 있는 교회는 세계 너머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기 위한 해석과 식별의 활동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교회 내의 해석의 정치에 깊이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셋째는 세계 너머로부터, 혹은 세계 내부의 침묵당한 타자들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교회 밖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종교 전통들은 자신들 내부의 해석의 투쟁을 거치면서, 한층 심화되고 다듬어진 새로운 전망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있다. 지금의 소비자본주의가 제공하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망을 내오기 위해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그와 같은 다양한 노력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소비 자본주의의 인간학과 사회

2-1. 인간과 생명을 포기한 소비

장 보드리야르는 소비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하는 일은, 상품 소비 과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논리와 그 논리의 작동과정을 밝히는 일이라고 하였다.⁴⁾ 쉽게 말하면, 소비의 과정은 소비하는 주체, 소비하는 대상으로서의 상품, 그리고 그 소비를 유발하는 필요 혹은 욕망 등이 연결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연결과정을 뒷받침하는 일종의 무의식적인 논리가 있고, 그 논리가 사회

3) 한국교회가 소비자본주의의 질서와 가치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형태들을 보려면, 다음 책을 참고하라.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기획) , 제 3 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역음), 『당신들의 신국 한국 사회의 보수주의와 그리스도교』 (서울: 돌베개, 2017 년).

4) Jean Baudrillard, "The Ideological Genesis of Needs" in Juliet B. Schor and Douglas B. Holt, ed., *The Consumer Society Reader* (New York: The New Press, 2000), p. 183.

적 가치와 질서를 구성하면서, 우리 시대의 특별한 소비양식을 정당화해주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무의식적 논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소비의 주체가 진짜 주체이고, 소비의 대상이 정말로 필요한 상품이고, 소비의 욕망은 자연스럽고도 정당한 요구라는 일종의 왜곡된 형이상학적 토대라고 보고 있다.⁵⁾ 아마도 신학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왜곡된 형이상학적 혹은 인간학적 토대를 향해 도전하고 폭로하면서,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대상화하고, 기호적 상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소비자본주의 사회를 향하여 인간과 생명의 신비를 다시 분명히 할 수 있는 신학적 인간학을 새롭게 구축해 내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해 보면, 기독교 선교와 지구화하는 소비자본주의 세계 사이에는 외형상 유사점이 많다. 둘 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정신적, 물질적 질서와 가치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보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세계의 지구화도 기독교의 선교도, 기존의 질서를 구성하고 있는,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정치적 경계들을 가로질러 자신이 주장하는 가치와 질서를 확산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 그리고 기독교 선교나, 소비 자본주의가 지구적 변화를 실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둘 다 물질적인 질서와 비물질적인 정신적이고 의식적인 질서가 교묘하게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기독교의 콘스탄틴화와 종교개혁 이후의 서구 질서의 재편, 서구의 팽창주의와 기독교 선교가 결합한 역사 역시 같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기독교 선교와 소비자본주의의 지구적 확대 사이의 유사점을 보여주려는 이유는, 단지 외형상의 공통성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도 신학과 신학적 인간학 혹은 세계관이 소비자본주의의 질서와 공모하여, 그 질서를 뒷받침하는 일종의 형이상학적 토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⁶⁾

자유시장주의자들은 처음부터 단순히 허무적 물질주의를 강변해왔던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말하면서, 인간의 이성적, 윤리적 잠재력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할 정도로 뻔뻔하지는 않았다. 하이에커(Hayek)나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 같은 시장자유주의자들은 지구화한 시장 자본

5) Ibid.

6)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신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옹호하고 있는 신학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D.Stephen Long, *Divine Economy: Theology and the market* (London: Routledge, 2000). 특히 이 책의 제 1부, "The Dominant Tradition: Market Values"를 참고하라.

주의 혹은 소비 자본주의가 인류가 꿈꾸어 온 자유와 민주의 이상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체계라고 주장하면서 등장하였다. 자유무역 없이 자유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미 출발부터 자신들이 내 세우는 물질적인 질서를 위한 비물질적 형이상학적 뒷받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반대자들을 향하여 종교적 정죄와 심판의 용어를 사용하여 공격하고 있으며, 이 소비자본주의 시장질서를 옹호하는 일은 신이 주신 자유를 지키는 신성한 임무라고 말하고 있다.⁷⁾ 소비자본주의의 물질적 질서와, 종교적 이념적 가치 체계의 교묘하고도 깊숙한 결합에 대해서 깊이 의식하고 분석해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⁸⁾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소비와 상품화 과정을 지배하는 논리, 우리가 충분한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 무의식적인 논리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형이상학적 또는 종교적 토대를 향한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은, 사회와 개인들이 별거벗은 물질주의 혹은 황금송배를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것으로 포장해 내는 허위의식에 대한 분석이다. 모든 것을 시장의 물질적 교환에 맡겨야 하고, 돈과 물질이 모든 것을 구해준다고 믿고 있는 듯한, 빈틈없이 물신숭배적이 된 이 세상에서, 사회와 개인들은 자신들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추구를 하고 있다는 착각이나 환상을 가진다는 점이다.⁹⁾ 이러한 사회학적 조사 통

7) 대표적인 것이, 9.11 이후 부시정권의 각종 신학적 선언문들이 그에 해당할 것이다. 2001년 국회연설과 2003년 1월의 국정연설 등을 다음 주소에서 참고하라. Address to a Joint Session of "Congress and the American People", from 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1/09/20010920-8.html, "State of the Union Address", Jan. 28, 2003. from 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3/01/20030128-19.html.

8) Mark C. Taylor, "Christianity and the Capitalism of the Spirit," in *About Religion: Economies of Faith in Virtual Cul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154-58. 돈의 기호인 동전이나 화폐와 감사성만찬의 빵(혹은 면병) 사이의 유비적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라. Marc Shell, *Art and Mone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13, 15, 19; Emilio Gentile, *Politics as Religion*, trans. George Staunt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xi-xiv, 이런 연구들은 달러 표시가 종교적으로 성스러운 상징을 차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달러 표시 \$는 IHS, 즉 예수를 표시하는 기호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성찬의 빵에 표시된 IHS가, 달러표시가 된다. 후기 산업사회의 경제적인 유통수단 위에 일종의 절대 정신, 비물질적인 절대적 가치가 등장해 있다. 그래서 달리는 더 이상, 물질이나 물질의 기호가 아니다. 달리는 신이다.

9) 소비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일차적 관심이 물질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비물질적 이라고 표현하게 된다는 연구를 보여주는 자료로 다음을 참고하라. Ronald Inglehart,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chap. 4. 이 책에서

계들이 보여주는 것은, 쉽게 반소비주의나 반자본주의적 의식이 강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가장 물질중심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그 삶을 가리고 은폐하기 위해서 오히려 일종의 탈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허위의식을 강화한다는 이야기다. 한 마디로 탈근대적 소비자본주의 사회는 탈물질적 정신과 가치체제로 뒤받침되는 질서이며, 그러한 탈물질적 허위의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어 내는 사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탈물질적 허위의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세밀한 분석은 피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학적 상식의 범위에서 설명해 보면,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과정이 비물질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본주의는 유지된다. 시장의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은 그에 맞는 사회 질서를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소비의 과정을 비물질적 과정으로 포장하고, 세계와 사회질서를 비물질화한다. 상품의 생산자, 소비자, 필요, 욕망 등이 엮이는 사회적 과정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 사람들과 다른 피조물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가장 표준적이고 지배적인 틀이 된다. 소비자로서의 가면을 쓰고, 그것을 연기하며 살면서, 그것이 곧 정말 사람이고, 진정한 주체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종의 소비자본주의의 소비과정이 제공하는 상상의 질서를 살아가는 상상의 공동체다. 그리고 그 상상의 공동체 안에서, 개인과 사회는 자신을 설명해내고, 지켜 내려고 한다.

무엇인가 만들어져서, 일단 사고 파는 상품이 되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생산과정과 분리된 독립된 상품으로서 의지와 영혼을 얻게 된다. 상품은 소비자에게 기능적 효용에 따르는 사용가치로 인식되거나, 시장에서 환금화 할 수 있는 교환가치로 인식되는 것을 넘어, 일종의 기호적 표현 양식이 된다. 그래서 노동 생산을 일반적으로 알아보기 쉽지 않은 사회적 상형문자로 바꾸어 버린다. 일종의 탈맥락화다. 사물들의 실재와 가치는 돈이라는 시장의 교환수단을 통해서, 걸려져서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내용이 된다. 시장을 향한 재맥락화 과정이다. 이 탈맥락화와 재맥락화 과정에서 곧 사물과 노동의 실재적 과정에 대한 의도적 무시와 무지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상품과 상품의 소비에 대한 허위 의식이 만들어지게 된다.

보드리야르의 설명을 따르면 상품을 소비하는 것은, 선물을 받는 것과, 소모품을 소비하는 것의 중간 지점에 자리잡고 있다.¹⁰⁾ 객관적으로 보면, 선물은 반드시

잉글하트는, 소비자본주의와 탈근대적 문화상황의 탈물질주의(Postmaterialism) 경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이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물건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특별한 인간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은, 그것이 수 만개 같은 상품중의 하나 일지라도, 결코 수만분의 일이 될 수 없고,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으로 대체될 수도 없는 고유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래서 진정한 선물은 고유명사다. 그런데 이것은 두 사람이 참여하는 구체적이고 실재적인 관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고유함이다. 소모품을 소비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오직 기능만을, 오직 사용가치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개별 상품에 어떤 고유한 의미도 주지 않는다. 그 상품을 둘러싼 특별한 인간관계나, 그 상품이 갖는 특별한 의미 같은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바꾸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소모품의 소비 과정이다. 소비사회의 상품소비과정은, 이 둘의 중간,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인간 관계에도 얽히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동시에 선물의 상징적 가치를 누리고 싶고, 누릴 수 있다는 태도가 지배한다. 그래서 소비사회가 말하는 자유는 앞에서 보았듯이,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동생산의 과정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림으로써 얻는 자유이면서, 동시에 인간관계를 희생해서 누리는 자유다.¹⁰⁾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는, 모든 상품이 이상적 물신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확대된 상품들의 세계, 곧 확대된 이상과 주물들의 세계는, 사물들 사이에 그리고 상품들 사이에 신비적이고 환상적이고 불가사의한 관계의 세계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래서 일종의 환상적이고 종교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상품들의 관계망이 빚어낸 세계관 안에서 결국 모든 것은 가장 보편적인 상품, 돈으로 수렴되고, 모든 사물과 생명은 다 이 돈의 파생이 된다. 그래서 인간도 생명도 돈으로 환산되는 상품이 된다. 소비자본주의가 말하는 자유에는 이것도 포함된다. 유형 무형의 모든 인류유산과 만물이 다 상품이 되어 시장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자유다.

만물이 다 시장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만물이 돈을 본질로 하는 자기 이해를 갖게 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것이 바로 상품화다. 만물이 상품화되는 것은, 모든 것이 팔 것이 되고 살 것이 된다는 말인데, 사람과 사물은 물론이요, 유형

10) Jean Baudrillard, "The Ideological Genesis of Needs" in Juliet B. Schor and Douglas B. Holt, ed.,

The Consumer Society Reader (New York: The New Press, 2000), p. 195.

11) Ibid., pp.187-189. 보드리야르에 의하면, 소비상품 그 자체가, 이미 사회적 관계와 인간적 관계의 폐기를 표현하는 그 관계들의 물화된 기호다.

무형의,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것이 상품이 된다. 사랑도 복음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 돈은 비로소 만물의 본질이 되고, 만물은 그 본질의 표현이 된다. 그래서 돈의 초월적 위치가 확고해지고, 사람들은 이 세계 안에서 결핍과 공포를 느끼면서, 돈을 향한 무한 추구에 뛰어들게 된다. 노동생산 과정의 물질성을 망각하고, 인간관계로부터의 자유를 외치며, 사람 사이의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연민이나 공감을 매우 초라한 것으로 여기면서, 돈을 향한 무한 추구의 자유를 주장한다.

통신기술의 고도 발전과 함께, 가상적 실재를 만들어내고, 가상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상상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욕망과 삶을 이해하고 전개하는 능력은 그 어느 때 보다는 확대되어 있고, 그것이 소비 자본주의 지구화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시뮬라크라, 실재적 가상(real virtual) 등으로 말해지는 우리 세계는, 이제 가상세계와 실재세계의 구별이 없는 새로운 세계로 보인다. 그래서 낙원의 상상적 재창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가상 세계의 확대는 노동생산의 대상과 노동생산의 결과가 훨씬 더 많이 비물질적인 것이 되고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이 노동과 생산과 소비의 비물질성의 확대는, 소비자의 실재에 대한 망각, 착각, 환상을 훨씬 더 강화한다. 매트릭스가 고발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수많은 억압과 착취와 살육으로 지켜지는 세계임을 망각한 채, 가상현실들이 제공하는 환상의 세계를 즐기며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다. 이런 세계에서 물질성의 회복, 실재에 대한 감각의 회복, 그리고 사람 사이의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을 말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소비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자유는 선택의 자유를 넘어 무한을 향해 치닫고 있다. 요즘사람들이 열광하는 “실시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섬뜩할 정도다.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그것이 현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선택의 자유보다 훨씬 더해 보인다. 선택이라는 말은 그래도 어떤 제한이 있음을 전제한다. 그런데 실시간이 추구하는 자유는 생각과 현실 사이에 어떤 모순도 괴리도 없는 그야말로 신의 자유다. 생각과 실재 사이의 어떤 간격도 없애겠다는 이 자유는 속도를 통해서 그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마치 영생의 복음을 전하듯 그렇게 선전하고 있다. 속도를 통해서 생각과 실재 사이의 간격을 메꾸겠다는 이야기다.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다. 간격과 느린 속도를 극복할 수 없었기에, 일정한 대상을 정지시켜 놓고, 그것을 개념으로 파악하던 한계를 벗어나, 현

재를 현재로, 살아있는 것을 살아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마치 철학의 오랜 염원을 성취해줄 수 있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 물론 기계와 기계 사이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생명과 생명, 그리고 실재와 실재의 만남 속에서는, 그들을 정지시켜 죽은 사물로 만들어 놓지 않고 서는 불가능하다. 물질적 실재와, 인간관계의 실재를 제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자유다. 그래서 시장의 자유와 속도의 욕망이 결합한 세계는 차라리 섬뜩하다.

세라토는(Michel de Certeau)는 소비자본주의 세계가 말하는 자유는 일종의 백색 환각(White Ecstasy)이라고 표현한다.¹²⁾ 내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산 꼭대기에 두 도인이 앉아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다 갖는 자유 같은 것이다. 그래서 다 가진 것 같지만 하나도 못 가진 것이며, 다 보는 것 같지만, 하나도 보지 못하는 봄이다. 그래서 백일몽이고, 백색환각이다. 말하자면, 이 자유는 실재의 망각을 전제하는 자유다. 모든 것을 공약 가능한 디지털나, 픽셀로 분해해서 모든 것을 무한하게 전달하고 무한하게 향유하겠다는 자유다. 그런 세계에 더 이상 진정한 의미의 형이상학도 없고, 고유한 의미 같은 것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형이상학의 종말, 역사의 종말, 탈영토화, 기관 없는 신체, 하이퍼리얼리티 등등의 표현이 난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¹³⁾ 그리고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 거리도 속도도 없는, 무한 자유 운동의 세계 안에서 인간과 생명들은 관계의 접점들이 될 수 없다. 인간관계와 사회적 관계와 생명 세계는, 디지털들과 픽셀들의 관계로만 이해될 것이다. 이런 세계가 망각과 죽음을 향한 돌진이 아닐 수 있을까?

2-2. 자유와 강권 정치의 모순

트럼프와 같은 노골적으로 민족주의적이고 패권적인 정치를 하는 인물의 등장은 정말 예상 밖의 일일까? 사실은 지구화한 소비자본주의의 당연한 귀결이 아닐까? 자유 시장, 자유 무역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이, 소비자본주의를 지구화해 온 사람들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영국의 마가렛 대처, 미국의 레이건 같은 시장 자본주의의 지구화를 주창하고 추진해 온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시장과 소비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의 자유와 강권정치는 이미 뿌리에서부터 결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콜린 크라우치(Collin Crouch)는 포스트민주주의(Post-democracy)의 조건들을

12) Michel de Certeau, "White Ecstasy," trans. F. C. Bauerschmidt and C. Hanley, in *The Postmodern God*, ed. Graham Ward (Oxford: Blackwell, 1997), 157.

13) 형이상학의 종말은 하이데거와 데리다에 해당할 것이고, 역사의 종말은 프라시스 후쿠야마, 그리고, 기관 없는 신체는 료타르, 탈영토화는 들뢰즈와 가타리가 사용했던 말이다.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의 지구화된 소비자본주의 세계 안에서 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¹⁴⁾ 그가 말하는 포스트민주주의의 조건들을 열거해 보면, 첫째로, 사람들이 스스로 의지를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설득 수단에 의해서 의지가 창조되고 조작되는 시대에 들어섰다고 본다.¹⁵⁾ 언론재벌을 영향 하에 있는 미디어와 광고가 정치적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커진 시대이며,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들이 정말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하는 상황이다.

둘째로, 경제적 질문이 정치를 지배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¹⁶⁾ 정치와 경제 권력의 결합이 그 어느 때 보다 강화되었고, 복지를 포함한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생산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사기업의 이해관계와 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사회적 영역 마저도 시장 논리와 질서의 포로가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시장과 자본의 지배가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하나는 공공영역, 경제영역, 사회영역 사이의 감시와 견제와 균형 관계가 약화되면서, 부패와 불투명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나아가 시장의 자유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강권정치가 점차 노골적으로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시장의 거래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소비자가 정치의 매개를 통해서 활동하는 시민들 대치하고 있다.

셋째는 개인의 원자화와 탈정치화 현상이다.¹⁷⁾ 고객, 혹은 소비자로서 시민은 사기업을 통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 만족을 얻도록 요구되고 훈련받은 사람들이다. 말하자면 레저와 개인적인 소비와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스스로 내려 놓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소비자들이 만들어 내고 있는 사회를, 안토니오 네그리 같은 경우에는 변증법 제로의 사회,¹⁸⁾ 또 다른 학자들은 대화가 사라진 사회로, 또 다른 사람들은 계급이 사라진 사회라고 이야기한다. 진정한 의미의 이해의 충돌도, 진정한 의미의 모순과 갈등도 없고, 진정한 의미의 대화도 없다는 뜻이다. 소비의 만족 불만족을 표현할 수는 있어도,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대화가 어려워진 사회를 말한다. 이렇게 대화

14) Colin Crouch, *Post-Democracy* (London: Wiley, 2004)

15) *Ibid.*, p.20.

16) *Ibid.*, pp. 43-46.

17) *Ibid.*, p.112.

18) Antonio Negri, *Time for Revolution*, trans. Matteo Mandarini (New York: Continuum, 2003), p. 41.

가 사라진 시대는, 결국 독재 사회이거나, 전체주의 사회다. 말하자면 시장 전체주의 사회다.

마지막으로 선거와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한다.¹⁹⁾ 강력한 소수가 훨씬 더 힘을 얻는 상황이고,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들이 유권자들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인적인 관심을 위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는 상황이다. 로비스트들의 활동을 통해서 보듯이, 투표와 관계없이 국회를 움직이는 경제권력을 보면서 아는 바와 같이, 선출과정에서는 확인되지도 않았고, 그 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이익이 훨씬 더 강력하게 대변되고 대표되는 상황이다. 선거를 통해서 뽑은 대표자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이익을 대표해서 활동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치적 소외와 불신은 확산되고,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결국 소비자본주의 사회란 시민이 아니라, 소비자로 구성된 사회이며, 정치가 아니라 시장의 소비과정이 지배적인 참여와 표현이 수단이 된 사회다. 그 사회에서 자유는 사람과 생명의 참여를 배제한 자유이며, 나아가 시장 안에서 선택의 자유는 있을지라도, 시장 밖을 바라볼 자유는 전혀 허락되지 않는 감시 체계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선택의 자유와 시장을 위한 강권정치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결합하여 인간과 생명의 소중한 관계 질서를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 것이다.

3. 소비 자본주의 시대의 신학적 인간학

사실은 소비 자본주의 시대의 종교에 대한 이해를 검토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세속화 또는 포스트 세속화 시대를 말하는 논의들 속에서, 소비자본주의 시대의 종교와 종교 소비에 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면서,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뒷받침하고 있는 인간학에 도전할 수 있는 신학적 인간학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 생각해 보려고 한다.

나는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일은,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인간학과 신학이 공모해 온 지점을 반성하는 일이라고 본다. 데이비드 보쉬는 근대적 계몽적 선교 패러다임을 넘어서, 탈근대적 선교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역설했었다.²⁰⁾ 하지만 이제 보

19) Crouch, *Post-Democracy*, p.19.

20) 데이비드 J. 보쉬 지음, 김만태 옮김, 『변화하는 선교: 선교신학의 패러다임 전환』 (서

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본주의와 공모했던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첫째로 종말의 현재성과 내재성을 강조하고, 전통에 대한 비판에 열중했던 과거가 분명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본주의의 인간학을 위한 계기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특히 식민주의적 선교과정에서 토착 종교문화적 전통에 대해서 평가절하해 왔던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사상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화하여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던, 전통적 해석학의 도구들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근대적이고 계몽적인 서구 신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왔었다. 결국은 이 과정이 소비자본주의 인간학을 무절제하게 수용하도록 만든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총체적 해방을 위한 무수한 추구들이 있어왔는데, 왜 이 해방의 추구가 시장의 자유를 향한 추구로 둔갑하게 된 것인지 물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근대적 진보와 발전의 개념과 신학이 공모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도 보다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한국의 교회의 사목과 선교가 지향하고 있는 인간상에 대한 보다 면밀한 반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소비사회가 내세우는 인간상을 교회를 통해서 재생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한국 교회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럴 위험성이 높다.

우리에게는 토착화신학이나 민중신학과 같은 소중한 신학적 해석학의 전통과 모델들이 있다. 이들은 한국교회와 신학이 시대적 선교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독교 전통과 한국문화 전통을 다시 만나게 하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계시적 메시지를 식별하고 선포해 왔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나는 이러한 신학적 해석학적 시도들이 더욱 치밀하게 다듬어져서, 개인에게는 기도와 영성훈련의 방법으로, 그리고 공동체적 해석과 식별과 선교적 실천의 방법론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민중신학의 합류해석학이 민중의 해방운동 안에 합류하는 다양한 전통들과 실천들의 해석학적 상호작용을 해명하려 했다면, 토착화신학 역시 식민주의와 분단으로 얼룩진 이 나라의 억눌리고 고통 당하는 정신적 물질적 삶을 직시하면서, 한국의 문화적 종교적 유산과 기독교 신학 전통과의 대화를 추구해왔다고 생각한다.²¹⁾ 소비자본주의의 인간학과 형이상학적 전제들에 대항해서, 새로운 인간과

울: CLC, 2017년). 특히 이 책의 10장을 참고하라.

공동체의 비전을 만들어 내야하는 선교적 과제를 향해서 다시 이 합류와 대화의 전통을 재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소비자본주의의 인간학과 형이상학을 극복하기 위한 합류와 대화의 노력을 위해 세 가지 해석학적 과제를 제시해 본다. 첫째로,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적인 탐욕적 질서와 가치 체계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인간과 피조물들의 고통에 보다 예리하게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고통을 보다 깊이 그리고 보다 세밀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래야 종교와 전통들의 합류와 대화가 일어나야 할, 해석학적 자리가 보다 명확해지고 풍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인간학과 형이상학적 토대를 구성하는 중요한 주제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과 소비자, 상품과 사물과 생명, 필요와 욕망과 탐욕, 그리고 자유와 경쟁, 절제와 책임 등, 개인의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그리고 목회적 차원과 선교적 차원에서 필요한 주제들을 함께 탐구하는 대화와 합류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소비자본주의가 야기하는 고통에 대해서, 감상적인 동정을 넘어, 구체적인 연대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한국의 토착화 신학과 민중신학은, 오랫동안 두 신학적 운동의 합류를 꿈꾸어 왔었다.²¹⁾ 문화적 변혁과 정치적 변혁이 함께하고, 개인의 변화와 사회구조적 변화가 함께하는 그런 꿈을 그려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꿈 안에는, 개인적이고 내적인 차원의 회심과 사회 구조적 변화 사이의 근본적이고 불가분리한 연결성을 확인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며, 나아가 그 두 변화의 차원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염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느님 나라는 그것을 세우려는 사람들의 회심에 기초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격이며, 회심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가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 사이의 우선 순위를 정하거나,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수렴하는 보다 교묘한 체계를 만들려는 노력이 아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문화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사이에 보다 통전적인 이해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21) 한국신학의 해석학적 모델들에 관해서는, 다음 책을 참고하라. 김경재 지음, 『해석학과 종교신학』(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4)

22) 김경재, “문화신학과 정치신학의 상보관계에 관하여 - Paul Tillich의 문화신학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신학』 논문집 Vol.1 (1996).

다문화사회에서 서로비추기와 서로배우기

- 연민, 환대, 연대

박홍순(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

1. 시작하는 글

25년 전 일이다. 학위과정을 위해서 영국 버밍엄에 도착했을 때 낯선 환경에서 머물 곳을 찾지 못해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다. 다행히 만난 선배로부터 거처할 곳을 소개받고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었다. 당시에 소개받았던 집은 80세가 넘는 은퇴한 선교사가 살고 있었던 곳으로 또 다른 유학생이 머물고 있었다. 서로 다른 경험과 환경에서 살았던 세 사람이 가족처럼 한 집에서 살게 된 것이다. 이때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어떻게 케이 할머니¹⁾는 선뜻 낯선 사람인 나에게 방을 내어주었을까? 거처와 집을 내어주는 행동은 온 존재를 받아주는 ‘환대’인데 그렇게 기꺼이 받아주는 실천을 할 수 있었을까? 만약 나는 이와 같은 실천을 기꺼이 할 수 있을까?

당시에 은퇴한 선교사였던 케이 할머니에게 그 질문을 하지 못했다. 학위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후 이주민 관련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았다. 선교사로 사역했던 케이 할머니는 낯선 나라에서 살았을 때 그 곳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았던 경험을 떠올렸을 것이다. 환대는 또 다른 환대로 확장한다. 25년 전 받았던 ‘환대’ 경험은 지금, 여기에서 ‘환대’를 확장하는 활동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묻는다. 한국사회는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사회인가? 왜냐하면 “한 사회의 문화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는 바로 이 사회의 환대, 나아가 친절함”²⁾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이주민과 선주민, 지역교회에서 함께 신앙하는 이주민 성도는 선주민 성도와 서로 연결된 존재라 느끼고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사회에 거

1) 선교사님 이름은 캐터린 호손(Katherine Hawthorne)이었고 주변 사람들은 케이 할머니로 불렀다.

2) 현병철 저, 이재영 역, 『타자의 추방』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7), 32-33.

주하는 체류 이주민은 2019년 4월 말 현재 2,430,589명이다.³⁾ 가족, 신앙공동체, 사회 그리고 국가 곳곳에 이주민이 선주민과 함께 공존하는 상황에서 분리와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환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한국사회는 이주민을 환대하는 사회인가? 한국교회는 이주민을 환대하는 공동체인가? 한 사회와 한 교회 문화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가 이 사회와 이 교회가 실천하는 환대와 맞물려 있다. 한 사회와 한 교회 인권 수준을 그 사회와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러한 관점을 한 걸음 더 확장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와 공동체와 “국가의 위대함을 가능하는 척도 강자가 얼마만큼 성공하느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약자를 얼마나 잘 지지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⁴⁾이다.

놀라운 것은 연민과 공감의 마음으로 연대하는 것처럼, “차별”⁵⁾이나 “혐오”⁶⁾나 “비인간성”⁷⁾이 상호적이라는데 있다. 누군가를 차별하면 차별하는 주체에도 영향을 끼치며, 누군가를 혐오하면 혐오하는 주체에도 영향을 주고, 누군가에게 가해지는 비인간성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인간성에 영향을 끼친다. 모든 사람은 서로 연결된 존재이며 서로를 “인식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울”⁸⁾인 것이다.

이 글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진단이나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사역에 대한 다양한 글은 이미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다문화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두 가지 관점, 즉 “서로비추기”와 “서로 배우기”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현장에서 실시하는 환대와 연대로 살펴볼 것이다.

2. 다문화사회와 ‘서로비추기’

‘서로비추기’는 이주민과 선주민, 이주민 성도와 선주민 성도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관점과 태도를 포괄하는 말이다. ‘지구화’ 혹은 ‘세계화’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거나 언급되기 전에는 이주민과 선주민이란 개념을

3)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법무부, 2019.04), 3.

4) 파커 J. 파머 저, 김찬호 역,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파주: 글항아리, 2014), 33.

5) 윌리엄 피더스 저, 김희경 역, 『푸른 눈, 갈색 눈 - 세상을 놀라게 한 차별 수업 이야기』(서울: 한겨레출판, 2012), 42-43.

6) 유서연, 『공포의 철학 - 타자가 지옥이 된 시대를 살다』(파주: 동녘, 2017), 92.

7) 장 지글러 저, 이현웅 역, 『유엔을 말하다』(서울: 갈라파고스, 2018), 352.

8) 앞의 책.

사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어디를 가든 어디서 본 듯한 생김새를 가진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불편함은 상상할 수도 없고, 익숙하고 편안했던 시간과 공간을 낯선 사람들과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2백만 명이 넘는 이주민이 어느새 마을과 농촌과 도시 곳곳에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우리는 이전에는 거의 던지지 않았던 질문을 순간순간 던질 수밖에 없다. 이주민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가능한가? 이주민은 이웃이며 친구인가? 이주민은 타자이며 이방인인가?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선주민은 어떤 관점과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성서는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사는 사회와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지역사회와 지역교회는 이주민과 어떻게 공명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 중 하나가 바로 ‘서로 비추기’이다. 이 질문에 서로 비추어 보고, 서로에게 서로를 비추어 봄으로써 반성과 성찰과 깨달음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환대를 또 다른 환대로 확장하는 연대

초기기독교 신앙공동체에게 있어서 ‘환대’는 중요한 덕목이었다. ‘환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나그네와 ‘낯선 사람’은 신약성서에서 다채롭게 서술된다.⁹⁾ 낯

9) 신약성서에서 ‘나그네’라는 용어는 19회(마 25:35, 38, 43, 44; 27:7; 행 2:10; 7:6, 29; 13:17; 17:21; 엡 2:19; 딤후 3:2; 5:10; 딤후 1:8; 히 11:13; 벧전 1:1; 1:17; 2:11; 요삼 1:5), 거류민은 1회(벧전 2:11), 외국인은 3회(행 17:21; 고전 14:11; 히 11:13), 나그네 대접은 3회(딤후 3:2; 딤후 1:8; 벧전 4:9)가 나타난다. 첫째로 “나그네”로 번역한 헬라어 ‘크세노스(xenos)’는 14회(마 25:35, 38, 43, 44; 27:7; 행 17:18, 21; 롬 16:23; 엡 2:12, 19; 히 11:13; 13:9; 벧전 4:12; 요삼 1:5)가 사용되고 있어서 개정개역 성서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14번 사용되는 ‘크세노스’라는 용어는 “나그네”라는 의미로 9회(마 25:35, 38, 43, 44; 27:7; 행 17:18; 엡 2:12, 19; 히 11:13; 요삼 1:5)가 사용되고, “외국인”이라고 번역해서 1회(행 17:21) 언급된다. 나머지 3회는 다른 나라(행 17:18), 다른 교훈(히 13:9), 이상한 일(벧전 4:12)처럼 “다른”의 의미를 담고 있다. 마지막 1회는 돌보아 주는(롬 16:23)과 같이 환대와 돌봄의 의미 사용한다. 따라서 ‘크세노스’는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의미, 다르고 낯설의 뜻, 그리고 사람이나 공동체를 돌보는 의미로 사용된다. 둘째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번역한 헬라어 ‘파레피데모스(parepidemos)’는 3회(벧전 1:1; 2:11; 히 11:13)가 사용된다. 3회가 사용된 ‘파레피데모스’는 “나그네”로 2회(벧전 1:1; 히 11:13) 번역되고, “거류민”으로 1회(벧전 2:11)가 사용된다. ‘파레피데모스’라는 단어는 “거류민”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파레피데모스’는 자신의 나라와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한다. 이주민 가운데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어근을 갖는 단어가 “나그네”라는 뜻으로 번역된 ‘에피데메오(epidemeo)’로 2회(행 2:10; 17:21)에 나타난다. 이 단어는 모두 낯선 나라에 나그네로 머물게 되거나 거기서 살고 있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거류민은 아주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셋째로 “나그네”로 번역되어 사용되는 ‘파로이코스(paroiikos)’로 4회(행 7:6, 29; 엡 2:19; 벧전 2:11)가

선 환경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했던 초기기독교 신앙공동체는 선주민과 공존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중 정체성 혹은 다중 정체성을 지니고 살았던 초기기독교 신앙공동체는 ‘낮선 사람’을 환대하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인식했다. ‘환대’를 또 다른 ‘환대’로 확장하는 연대가 초기기독교 신앙공동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였을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

‘환대’라는 단어가 지닌 다양한 뜻과 정의가 있다. 지금, 여기에서(here and now) ‘환대’라는 단어에 주목하는 이유는 낮선 사람이라고 서술하는 외국인, 이방인, 타자, 이주민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질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낮선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 필연적으로 ‘낮선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질문은 또 다른 질문을 낳는다. ‘서로비추기’는 잠시 멈추어 서서 ‘낮선 사람’ 목소리를 듣는 것을 제안한다. 피로사회¹⁰⁾에서 소외된 존재를 회복하기 위한 반성과 성찰이 ‘낮선 사람’이 지닌 ‘시간’을 주목하는 것이다. 소란스러운 처지와 환경을 떠나서 타자와 ‘낮선 사람’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경청하는 대안은 지금, 여기에 필수적이다. 한병철이 말하는 시간혁명은 다음과 같다.

소란스런 피로사회는 듣지 못한다. 어쩌면 미래의 사회는 경청하고 귀 기울이는 자들의 사회라고 불릴지도 모르겠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혀 다른 시간이 시작되게 하는 시간혁명이다. 타자의 시간을 다시 발견해야 한다. … 우리를 고립화하고 개별화하는 자기 시간과는 반대로 타자의 시간은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타자의 시간은 좋은 시간이다.¹¹⁾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스스로를 착취하는 사람들¹²⁾에게 가던 길을 멈춰 서서 ‘낮선 사람’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제안은 생똥맞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서로비추기’에 기대어 스스로를 돌아본 후 ‘낮선 사람’과 함께 살아가려고 한다

언급된다. 이 용어는 대체로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시민의 권리가 갖지 못하는 임시체류자를 지칭할 때 사용된다. 넷째로 “나그네를 대접”이라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펠로크세노스”는 3회(딤후전 3:2; 딤후 1:8; 벧전 4:9)가 사용되는데 목회서신(딤후전 3:2; 딤후 1:8)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의미로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1회는 일반적인 환대와 호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현한다(벧전 4:9). 나그네를 포함해서 도움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환대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이 초기기독교신앙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박흥순, “다문화사회와 신앙성서”, 박흥순 외 공저, 『다문화사회 이야기마당』 (서울: 꿈꾸는터, 2017), 168-169.

10) 한병철 저, 김태환 역, 『피로사회』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2).

11) 한병철 저, 『타자의 추방』, 119-120.

12) 한병철 저, 『피로사회』, 6.

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다. ‘타자’, 즉 ‘낮선 사람’의 시간을 재 발견하는 것이다. ‘자기 시간’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낮선 사람의 시간’으로 확장 하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출발일 수 있다. 타자 의 시간을 다시 발견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환대’와 ‘연대’를 가능하도록 이끈다.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지역교회는 ‘환대’가 갖는 진정한 의미를 해방시킬 필요가 있다. ‘환대’는 단순히 ‘낮선 사람’에게 물질적 도움과 심리적 안정을 제공 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특히 ‘환대’를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대하는 일이다. 균형이 깨지고, 온갖 차별로 얼룩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회와 공동체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바로 환대이며, 차이를 넘어서 서로를 연대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 을 환영하는 일이다.¹³⁾ ‘낮선 사람’을 환대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환대하는 실천 이다.¹⁴⁾ 나그네를 환대했던 의인은 ‘낮선 사람’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환대했다(마 25:31-46).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지역교회는 ‘낮선 사람’을 어떻게 환대하 는가? ‘환대’ 이야기는 창세기 18장 1절~ 15절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 기와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에 소개하는 엠마오 두 제자 이야기를 소환한다. 아브라함이 ‘낮선 사람’을 환대하지 않았다면, 엠마오 두 제자가 ‘낮선 사람’을 그 냥 지나쳐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에게 질문한다. 분명한 것은 “신앙인이 낮선 자를 환대하지 못하면, 영적인 여정은 갑자기 멈춰버린다는 것”¹⁵⁾이다. ‘낮선 사람’을 환대하는 것은 신앙적 실천이며, 하나님을 환대하는 행동이다.

2) 연민과 환대로 협력

‘서로비추기’는 연민과 겹쳐진다. 누군가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과 처지에 있을 때 함께 고통을 당하며 연대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예수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과 더 철저히 연민하고 연대했다.¹⁶⁾ 따라서 다문화사회

13) 레티 M. 러셀 저, 여금현 역, 『공정한 환대 -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낮선 이들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환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24.

14) 앞의 책, 47-48.

15) 파커 J. 파머,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235-236.

16) 예수께서 지향하신 사역과 가르침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다. “세 리와 죄인”이라는 꼬리표는 예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심밖에 있는 주변부와 가장자리에서 살아가는 마이너리티이다.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이다. 예수께서 지향하는 메시아적 사역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 들, 세리와 죄인, 즉 마이너리티와의 공존과 연대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박흥순, “성 서의 관점에서 본 마이너리티 문제”, 『기독교사상』 통권 643호(2012년 7월호), 34.

에서 ‘서로비추기’를 실천한다는 것은 ‘낮선 사람’을 포함함 모든 사람을 향한 연민과 연대를 실행하는 것이다. ‘낮선 사람’을 향한 연민의 시선은 결국 스스로를 더 철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일이다.

수치심은 도덕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 중의 하나다. 수치심은 인간으로서의 자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상처를 받거나 배가 고프거나 궁핍함으로 인한 모욕감 때문에 심신이 괴롭다면, 나는 고통을 느낀다. 나 아닌 다른 인간에게 가해진 고통을 바라볼 때도 나는 나의 의식 속에서 얼마간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연민의 감정이 생겨나고, 도와주고 싶은 연대감이 발동하며, 동시에 수치심을 느낀다. 이렇게 되면 내 안에서는 행동하라는 부추기미 일어나게 된다.¹⁷⁾

다른 사람이 당하는 상처와 고통에 연민하고 연대하는 것은 결국 불평등과 불의로 깨져버린 이 세계 질서에 저항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저항은 불평등과 불의로 균형을 잃은 세상을 치유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 환대를 실천하는 일이다.¹⁸⁾ ‘예수의 시선’과 모든 사람을 향한 ‘연민의 시선’으로 환대하는 것이 바로 ‘서로비추기’라 할 수 있다.¹⁹⁾ 연대는 누군가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비를 함께 맞는 것”²⁰⁾이다. 혼자서 비를 맞는 것을 그냥 바라볼 수 없는 측은지심과 연민의 마음이다.

3) ‘낮선 사람’과 ‘서로비추기’

타자, 이방인, 이주민 등 다양한 이름으로 호명하는 ‘낮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무지’에서 출발한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은 막역한 두려움과 불안을 조장하고, 공포는 결국 혐오와 차별로 확장한다.²¹⁾ 무지는 공포로 이끌고, 공포는 혐오로 이끈다. 결국 ‘무지’가 문제다.²²⁾

17) 장 지글러 저, 양영란 역, 『탐욕의 시대 - 누가 세계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가?』 (서울: 갈라파고스, 2008), 13.

18) 레티 M. 러셀, 『공정한 환대』, 47-48.

19) 강남순, 『코스모폴리타니즘과 종교 - 21세기 영구적 평화를 찾아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160.

20) 신영복, 『답론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 (파주: 돌베개, 2015), 295-296.

21) 유서연은 공포와 혐오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말한다. “공포라는 정서는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혐오는 공포라는 그림자를 달고 다닌다”고 진단한다. 유서연, 『공포의 철학』, 94.

‘타자’나 변두리(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기를 두려워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낯선 자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멕시코나 모잠비크에서 우리의 일거리를 빼앗는 노동자들, 혹은 우리의 도시를 파괴시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일 것이다. 이런 두려움의 어떤 것들은 사실 근거가 있고 조심스러운 이야깃거리지만, 그러나 종종 우리의 두려움이 근거가 있다고 해도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자신들의 불안전함과 원함과 분노를 합친 것이라, 서로 다른 인종, 계급, 성별, 그리고 성적 성향의 사람들 사이에서 혐오로 발전된다.²³⁾

‘낯선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갖는 까닭은 ‘낯선 사람’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낯선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노력한다면 두려움과 불안은 금방 사라질 것이다. 자신에게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성찰하고, 무지를 인정하는 일은 ‘환대’를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방식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상대방을 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은 점점 줄어”²⁴⁾들게 되는 것이다. 공존과 평화는 결국 ‘낯선 사람’이 ‘서로 비추기’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만들 수 있다. ‘낯선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을 때 ‘무지’는 ‘환대로’로 변환한다. 결국 ‘낯선 사람’에 대한 인식이 확장한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동일자이며 타자다. 나는 토착민인 동시에 이방인이다. 나는 선인 동시에 악을 배태한다. 나는 가해자인 동시에 희생자다. 그것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낯선 모습의 악을 인정하고 내 안의 속물성을 인정할 때 깨달을 수 있는 단계이다. 내 안에 존재하는 두려운 낯설음, 공포의 원천인 이질성이 있음을 인정할 때, 나는 다른 성, 다른 계급, 다른 인종, 다른 나라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이 토대 위에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윤리, 그리고 내 안에서부터 나를 덮쳐오는 공포를 전도하여 새로운 미학을 창출할 수 있다.²⁵⁾

‘낯선 사람’이 곧 나 자신이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이주하는 사람’, 즉

22) www.thenation.com/article/clash-ignorance/ 사이드(Edward W. Said)는 ‘무지의 충돌’이란 제목 글에서 ‘문명의 충돌’이 아니라 ‘무지의 충돌’이라고 강조한다.

23) 레티 M. 러셀, 『공정한 환대』, 153.

24) 파커 J. 파머,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37.

25) 유서연, 『공포의 철학』, 150.

“호모 미그란스(*Homo Migrans*)”²⁶)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 ‘낯선 사람’이 될 가능성은 결국 서로 형편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도록 이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관점과 태도로 바라볼 수 있도록 시각을 확장한다. ‘낯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자기 안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발견되는 성가시면서도 생기가 넘치는 신비”²⁷)를 경험한다.

타자를 환대하는지 여부는 ‘낯선 사람’ 얼굴을 바라보는 태도와 시선으로 가늠할 수 있다.²⁸) ‘낯선 사람’이 지닌 얼굴만으로 포용하고 받아들인다면 훌륭한 ‘환대’라 할 수 있다. 단지 ‘얼굴’만으로 사람을 환대할 수 있다면 충분히 만족스럽다. 왜냐하면 “‘얼굴’은 그 사람의 이름, 성별, 국적, 인종, 성적 성향 등 다양한 사회적 표지들이나 범주들 ‘이전에’ 또는 그 표지들 ‘너머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타자 인식의 장소”²⁹)이기 때문이다. 존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얼굴’만으로 ‘낯선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까닭은 외모나 생김새를 포함한 다양한 편견과 차별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서로 얼굴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서로비추기’이다. 존재를 서로 비추고, 얼굴을 서로 비추고, 태도와 관점을 서로 비추어 보면 편견과 차별이 작용하는 원인과 이유를 자연스럽게 살펴볼 수 있다.

2. 다문화사회와 서로배우기

1) ‘서로배우기’와 자율적 존재

‘환대’는 ‘서로배우기’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대안 중 하나다. 일방통행(One Way)이 아니라 상호통행(Interactive Way)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다문화사회에서 오해하거나 범하기 쉬운 잘못 가운데 하나는 이주민은 일방적으로 배워야 하는 수동적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문화사회에서 공존과 평화를 이야기하려면, 이주민과 선주민이 서로 배우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지역교회도 이주민 성도를 수동적 존재로 규정하려고 빈번하게 시도한다. 언어가 서툰고, 관습이 다르고, 문화가 낯설어 조심스럽게 적응하고 정착하려는 이주민과 이주민 성도를 바라보려는 고정관념을 교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6) 조일준, 『이주하는 인간, 호모 미그란스』 (서울: 푸른역사, 2016), 10.

27) 파커 J. 파머,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237.

28)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187.

29) 앞의 책.

다문화사회에서 ‘환대’ 목회를 실천한다는 것은 결국 서로 처지와 관점을 바꾸어 보고, ‘낮선 사람’에게 최대한 배우려는 틀의 전환에서 시작한다.³⁰⁾ 이주민, ‘낮선 사람’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는 인식 전환이 전제되지 않으면 결코 공존이나 평화를 상상할 수 없다. 일방적 “동화”³¹⁾나 의도된 통합이 아니라 상호소통과 자발적 혼종(hybrid)이 대안이다. 그래서 다문화사회는 ‘다양성 속 일치(unity in diversity)’에서 “다양성 속 연대”³²⁾와 ‘다양성 속 조화(harmony in diversity)’를 실천하는 일이다.

‘서로배우기’를 실천하려면 ‘낮선 사람’을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는가가 관건이다. 선주민도 이주민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명실상부한 ‘서로배우기’는 가능하다. 선주민 성도 또한 이주민 성도에게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받아들여야 진정한 ‘서로배우기’를 실현할 수 있다. 이주민에게 배우고, 이주민 성도에게 도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묻고 싶다. 이와 같은 대화와 이야기를 나누려면 이주민 혹은 ‘낮선 사람’ 목소리를 경청하고 귀 기울일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 ‘낮선 사람’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존재”³³⁾라는 깨달음은 대화와 ‘서로배우기’를 실현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따라서 ‘서로배우기’는 ‘낮선 사람’을 대상화하지 않고 동반자로 인식한다. 다시 말해서 ‘서로배우기’는 ‘낮선 사람’을 위한(*for*) 교육이 아니라 ‘낮선 사람’과 함께(*with*)하는 해방교육이다.³⁴⁾ 모든 사람이 “책임 있는 주체”³⁵⁾이며 “자율적 개인”³⁶⁾이다.

2) 서로배우기와 안전한 공간

‘서로배우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한 공간이다. ‘낮선 사람’이 마주치고 사귀고 섞일 수 있는 공적인 공간은 ‘서로배우기’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장소다.

30) 레티 M. 러셀, 『공정한 환대』, 49.

31) 박흥순, “사도행전의 첫 이방 기독교인에 관한 연구”, 『신약논단』 16(2009), 895.

32) Musa W. Dube, “Toward A Post-Colonial Feminist Interpretation of the Bible”, *Semeia* 78(1997), 26.

33) 허병섭, 『스스로 말하게 하라 - 한국 민중교육론에 관한 성찰』 (서울: 학이시습, 2009), 20. 허병섭은 지식인은 민중으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게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지적한다. 민중이 스스로 말함으로써 제대로 된 자리매김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이주민과 ‘낮선 사람’이 스스로 말하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지식인, 학자, 다문화 활동가 역할이다.

34) 파울루 프레이리 저, 남경태 역, 『페다고지』 (서울: 그린비, 2009), 57.

35) 앞의 책, 42.

36) 클로드 M. 스틸 저, 정여진 역, 『고정관념은 세상을 어떻게 위협하는가』 (서울: 바이북스, 2017), 273.

낮선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자유롭게 섞일 수 있는 곳,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유쾌해지고 강인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사이에 사회적·정치적 연합의 유대”가 생겨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공적인 삶이 영위될 수 있다.³⁷⁾

모든 사람이 ‘서로비추기’와 ‘서로배우기’를 통해서 공적인 삶과 ‘환대’를 실천하는 삶을 살려면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이 필요하다. ‘낮선 사람’과 더불어 ‘서로배우기’를 실천하려는 지역사회 지역교회는 이와 같은 공적이며 안전한 공간을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 다문화사회는 ‘서로비추기’와 ‘서로배우기’를 거듭 반복함으로써 환대와 연대를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서로배우기’는 ‘낮선 사람’ 삶 속으로 “경계를 넘어 들어가는 것”³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낮선 사람’에게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고, 서로 시각과 관점이 스며들 수 있도록 실천하려면 ‘낮선 사람’과 함께 배울 것이 있다는 신뢰와 의지가 있어야 한다. 선주민은 이주민에게 배울 의지가 있는가? 선주민 성도는 이주민 성도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믿음이 있는가? 이주민과 선주민, 이주민 성도와 선주민 성도가 ‘서로배우기’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려고 할 때 가능한 실험이다.

낮선 사람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하나라는 것, 어떤 차이들은 삶을 풍부하게 하고 골치 아픈 차이들은 타협될 수 있다는 것, 갈등하는 이해관계에 직면해서도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거래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우리는 낮선 사람들과 함께 자기 마음을 큰 목소리로 표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대화 속에서 우리는 다양성 안에 있는 공공선을 발견할 수도 있다.³⁹⁾

37) 파커 J. 파머,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167. 파머는 공적인 공간을 예로 들면서 영국 펍 공간을 소개한다. “현대사회에서 public의 본래 의미를 가장 충실하게 반영한 단어는 ‘펍(pub)’이다. 물론 그 단어는 영국의 ‘public house’를 줄인 말이다. … 영국의 펍은 언제나 완벽한 공동체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것을 드나들다 보면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다. 팔에 안긴 아기, 중년의 가장, 퇴근하여 집으로 향하는 남녀, 오래전에 은퇴한 노인, 평생 알고 지내는 이웃, 지나가는 길에 들른 이방인 …… 이렇듯 다양한 사람이 뒤섞이는 가운데 여러 뉴스와 가십이 오가고 지역의 현안이 토론된다. 웃음 그리고 때로 음악이 그 공간을 채우기도 한다. 그 안에서 공동체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스스로를 짜나간다. 펍은 민주주의에 꼭 필요한 종류의 “멋지고 좋은 장소”다. 거기에 오는 모든 사람을 환대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낮선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소우주다.”

38) 앞의 책, 88.

지역사회와 지역교회는 ‘낮선 사람’과 함께하면서 배웠던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선주민과 함께하는 이주민이 자신 의견이나 목소리를 제시할 기회와 여건을 마련했는가? 이주민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했는가? 다문화 목회나 이주민 사역을 진행할 때 이주민 성도가 논의 구조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시간과 공간을 제공했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에 구체적으로 답변할 때 ‘서로배우기’는 가능하며 실현할 수 있다.

3) ‘서로배우기’와 해방 교육

‘서로배우기’는 “은행저금식 교육”⁴⁰⁾이 아니라 “문제제기식 교육”⁴¹⁾에 토대를 둔다. ‘서로배우기’라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서로 배우는 주체와 객체가 된다. 교사나 선주민이 학생이나 이주민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교육은 ‘서로배우기’라 말할 수 없다. 다문화와 이주민 관련 모임에 참여할 때마다 전문가, 학자, 활동가가 이주민 정책과 다문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낮선 사람’ 의견을 묻고,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시도가 ‘서로배우기’에서 매우 중요하다.

해방 교육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민중이 자기 사고의 주인으로 느끼도록 하는 데 있다. 즉 민중이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자신의 생각과 세계관을 토론하고, 그것을 자신이나 동료의 제안에 담아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관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대신에 먼저 민중과 함께 대화를 통해 그 프로그램을 찾아야 한다는 신념에서 출발하기 때문

39) 파커 J. 파머,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170.

40) 파울루 프레이리, 『페다고지』, 87-88.

프레이리는 은행저금식 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들은 배운다.
2. 교사는 모든 것을 알고 학생들은 아무 것도 모른다.
3. 교사는 생각의 주체이고 학생들은 생각의 대상이다.
4. 교사는 말하고 학생들은 암전히 듣는다.
5. 교사는 훈련을 시키고 학생들은 훈련을 받는다.
6. 교사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실행하며 학생들은 그에 순응한다.
7. 교사는 행동하고 학생들은 교사의 행동을 통해 행동한다는 환상을 갖는다.
8. 교사는 교육 내용을 선택하고 학생들은 (상당도 받지 못한 채) 거기에 따른다.
9. 교사는 지식의 권위를 자신의 직업상의 권위와 혼동하면서 학생들의 자유에 대해 대립적인 위치에 있고자 한다.
10. 교사는 학습 과정의 주체이고 학생들은 단지 객체일 뿐이다.

41) 앞의 책, 96.

에, 피억압자의 교육학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며 여기에 억압자도 참여하도록 만들 수 있다.⁴²⁾

‘은행저금식 교육’을 넘어서 ‘문제제기식 교육’을 강조하는 해방 교육은 ‘서로배우기’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주민과 ‘낮선 사람’과 소통하고 공존해야 하는 선주민이 필수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낮선 사람’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마련하며 긴 호흡으로 기다리는 인내도 필요하다.

어눌하게 언어 소통을 한다고 이주민이나 ‘낮선 사람’이 생각과 관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습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⁴³⁾, 이주민은 선주민이 지도하고 안내해야 한다는 오만함으로 이주민이 스스로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아직도 ‘은행저금식 교육’에 더 익숙한 것이다. ‘서로배우기’는 “‘낮선 사람’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생각을 전제”⁴⁴⁾로 해야 한다. 선주민도 이주민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선주민 성도도 이주민 성도에게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해야 한다.

3. ‘서로비추기’와 ‘서로배우기’ 사례 -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를 중심으로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이사장 리종빈, 연구소장 박홍순) 모체는 2015년 4월 광주광역시에 설립한 다문화목회연구소이다. 다문화 담론에 대한 이론적 연구, 선주민과 이주민을 교육하는 다문화교육, 지역사회와 지역교회 협력과 연대를 모색하는 다문화 네트워크를 실천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다문화목회연구소라는 단체 이름을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로 변경하여 2017년 4월에 광주광역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마쳤다.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실천해 왔다. 지역사회와 지역교회 구성원과 협력하고 연대함으로써 공명해 온 사역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다수자와 함께 다문화교육

42) 앞의 책, 147.

43) 그래서 응구기 와 시옹오(Ngugi wa Thiong'o)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번역을 통한 언어들 간의 소통은 중요하다”고 말한다. 응구기 와 시옹오 저, 박정경 역, 『중심 옮기기: 문화 해방을 위한 투쟁』 (지식: 지식을만드는지식, 2009), 84.

44) 파커 J. 파머,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94.

익숙한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낯선 나라로 이주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노동으로 이주한 노동이주자, 혼인으로 이주한 혼인이주자, 정치와 종교 박해로 불가피하게 이주한 난민 등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함께 살아가는 대다수 선주민이 인식과 관점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민을 위한 사회적응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이주민이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선주민이 관용과 공감의 마음으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주민과 선주민이 평화로운 공존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수자, 즉 선주민과 함께 다문화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다수자 교육은 이주민과 살고 있는 지역교회 성도와 목회자,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다수자 교육 일환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사역자 양성과정과 다문화사회 이야기마당”⁴⁵⁾이 있다.

(1) 다문화사역자 양성과정

“다문화사역자 양성과정”은 광주광역시와 전남을 비롯한 호남지역에서 활동할 다문화 사역자를 교육할 필요성에서 시작하였고, 2012년부터 “다문화사역자 양성과정”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⁴⁶⁾ 1차(초급) 교육과정은 12개 강의를 이수해야 하고, 이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2차(중급) 교육과정 12개 강의를 수강한다. 1차(초급)와 2차(중급)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은 3차(고급)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8주간 다문화지원기관과 이주민지원기관에서 인턴 과정을 받게 된다.

다수자 교육 일환으로 진행된 “다문화사역자 양성과정”은 광주광역시와 전남을 비롯한 호남지역에서 다문화사역을 담당하는 지역교회와 기관 사역자와 활동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노동이주자와 혼인이주자가 지역교회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되는 상황에서 환영하고 환대하고 공존하는 방법과 매뉴얼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2) 다문화사회 이야기마당

45) 박흥순, “프롤로그”, 박흥순 외 공저, 『다문화사회 이야기마당』, 5-11.

46) 박흥순, “호남지역 다문화선교의 현황과 과제”, 『선교와 신학』 32집(2013), 202. 호남지역다문화선교회는 다문화선교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호남신학대학교 강성열 교수, 오현선 교수, 박흥순 연구교수, 백명기 목사, 류성환 목사를 중심으로 ‘다문화사역자 양성과정’을 구성하고 초급, 중급, 고급과정으로 교육과정을 준비했다.

“다문화사역자 양성과정” 교육과정이 사역자나 활동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다문화사회 이야기마당”으로 교육과정 이름을 바꾸어 실시했다. “다문화사회 이야기마당 교육과정”은 1차(초급), 2차(중급), 3차(고급)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초급) 교육과정은 8개 강의를 이수해야 하고, 이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2차(중급) 교육과정 8개 강의를 수강한다. 1차(초급)와 2차(중급)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은 3차(인턴)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문화사회 이야기마당” 교육과정은 다문화사역을 진행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이라고 할 수 있다. 목회자와 사역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확대함으로써 다문화사역을 준비하는 지역교회 성도와 목회자가 다수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 소수자와 함께 하는 역량강화교육

소수자 교육은 이주민이 주체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다. 노동이주자, 혼인이주자, 다문화가족, 이주민 청소년과 이주민 어린이가 한국사회와 한국교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역량을 강화하고 향상시키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는 혼인이주여성 부모교육, 이주민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인권평화캠프 숲·수·다를 진행한다.

(1) 혼인이주여성 부모교육

혼인이주여성과 함께하는 부모교육은 이주여성이 자신의 삶과 가족을 위해서 이주민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역량강화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했다.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소장 박홍순)와 공간엘리사벳(대표 오현선)가 주관으로 수행한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부모교육”은 2016년에 이어서 2017년에는 14명의 이주여성이 심화과정으로 모였다. 3월부터 5월까지 교육과정에 참가한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중국 출신 이주여성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울고 웃으며 부모교육 심화과정에 참가했다.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더 깊이 배우고 싶은 것이나 질문에 대해서 나눈 후에 향후의 교육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가 태어난다는 강의 내용을 회상하면서 부모교육 중요성을 다시 확인한다. 부모교육을 강의한 오현선 교수는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부모교육이 국제모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주여성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역량을

강조했다. 부모교육 출발은 사람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한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며 또한 사람이다. 부모교육은 인간에 대한 인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자녀에게도 똑같은 인간 이해를 표현하는 것이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인간이라는 인식으로 자녀를 교육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든 강의를 마치면 언제나 똑같은 질문을 던져서 이주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를 격려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들었나? 나는 오늘 강의 중에 이것이 가장 기억이 남는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부모교육은 조금씩 주체적으로 나아가며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확장하면서 보다 더 많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주어진다. 부모교육 강의와 토론은 깊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서로에게 도전과 지지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부모교육 과정을 모두 마친 후에 진행할 자조모임에서 “나는 이주여성이다. 내가 경험한 이주 이야기”를 주제로 각자의 이주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온 이주여성의 이야기를 부모교육의 중요한 지혜를 제공해 준다. 이주여성이 엄마로서 당당하게 자존감을 갖게 될 때 자녀들이 엄마 나라를 좋아하며 건강하게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부모교육은 한 인간으로서 이주여성이 자존감을 갖고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갈 때 자녀가 그 모습을 보며 성장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부모교육 심화과정을 받는 모든 이주여성은 선구자라는 자의식을 갖고 나중에 온 이주여성에게 좋은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당당한 자신들의 모습을 가꾸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부모교육 심화과정”을 마무리하고 수료식 때 서로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주여성에게 물었다. “어떤 꿈이 있나요?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주여성은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언어능력과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기로 스스로 다짐했다. 수료식을 앞두고 이주여성은 “나는 무엇을 배웠나? 나는 이렇게 달라졌다”는 주제로 소감을 발표하고 마무리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주여성 14명이 함께 시작한 부모교육 심화과정은 교육기간 중에 4명이 취업을 하거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마치지 못하고 10명의 이주여성이 수료를 하게 되었다. 수료증을 받아든 이주여성은 지난 교육과정을 행복하고 즐겁게 참여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 축하했다. 부모교육 심화과

정을 마친 이주여성은 이제 매달 한 번씩 만나서 자녀교육을 포함해서 자신을 돌보며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노력하는지 나눈다. 그리고 2016년에 강의한 “혼인이주여성과 함께하는 부모교육” 강의를 교육매뉴얼로 제작하고 출간했다.⁴⁷⁾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부모교육』 교재를 베트남어⁴⁸⁾로 번역해서 2017년에 출간했고, 2018년에는 캄보디아 크메르어⁴⁹⁾, 우즈베크어⁵⁰⁾, 영어⁵¹⁾로 번역하여 출간했다. 계속해서 이주여성이 후배 이주여성에게 부모교육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부모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자신의 모국어로 후배 이주여성에게 부모교육의 지혜를 함께 나눌 기회를 갖는다.

(2) 청소년인권평화캠프 숲·수·다(숲에서 만들어가는 수려한 다양성, 이하 숲·수·다)

“청소년인권평화캠프 숲·수·다(숲에서 만들어가는 수려한 다양성, 이하 숲·수·다)”는 2011년부터 광주에서 열었던 “다문화씨앗학교캠프”⁵²⁾를 확대한 교육과정 가운데 하나이다. 이주민 청소년과 함께 진행한 “다문화씨앗학교캠프”와는 달리 “청소년인권평화캠프 숲·수·다”는 이주민 청소년과 선주민 청소년 그리고 청년대 학생이 인권과 평화를 주제로 캠프를 진행한다. 인권평화캠프가 지향하는 방향 가운데 하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을 존중하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청소년인권평화캠프 숲·수·다”는 침묵, 연결하기, 놀이와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과 청년이 모두 스스로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깨닫도록 한다. 이주민 청소년과 선주민 청소년이 피부색이나 출신국가나 성별로 구별하지 않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월 1월에 3박 4일로 진행되는 청소년인권평화캠프 숲·수·다에 참가한 한 청소년은 “이 캠프는 너무 이상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해도 야단을 치거나 통제하지 않아요!”라고 소감을 말한다. “학교나 교

47) 오현선,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부모교육』 (서울: 꿈꾸는터, 2017).

48) 오현선,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부모교육 - 베트남어』 (서울: 꿈꾸는터, 2017).

49) 오현선,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부모교육 - 캄보디아 크메르어』 (서울: 꿈꾸는터, 2018).

50) 오현선,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부모교육 - 우즈베크어』 (서울: 꿈꾸는터, 2018).

51) 오현선,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부모교육 - 영어』 (서울: 꿈꾸는터, 2018).

52) 오현선, 『다름·다양성·관용 - 기독교다문화교육』 (서울: 꿈꾸는터, 2014), 256-266.

회에서 캠프를 가면 장난도 못 치게 통제하고 조용히 하라고 강요하는데 여기서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청소년인권평화캠프 숲·수·다는 다름, 다양성, 평등에 기초한 교육과정이다. 청소년인권평화캠프 숲·수·다는 “숲에서 만들어가는 수려한 다양성”이라는 말을 줄인 것으로, 다양한 존재들이 함께 하는 공간이 숲에서 인종, 젠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하고 초대한다.

청소년인권평화캠프 숲·수·다는 이주민 청소년과 선주민 청소년과 청년대학생 그리고 전문가가 모두 교육자인 동시에 피교육자인 쌍방향 교육과 참여교육으로 진행한다. 청년대학생은 주로 광주에 거주하는 신학생과 졸업생, 평화교육 활동가로 구성하였고, 전문가는 박홍순 박사와 오현선 교수가 참여했다.

청소년인권평화캠프 숲·수·다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마당”으로 불리며, 모든 사람이 참여, 씬, 놀이, 게임, 교제가 가능한 공간을 상징하는 마당에서 참여자가 모두가 자발적으로 활동한다. 3박 4일 동안의 캠프는 10개의 마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윤과 효율을 앞세워 경쟁하고 비교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경험하는 교육 방식이 대안이다. 청소년인권평화캠프 숲·수·다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공간이 심리적으로 ‘안전한 공간’이라고 느낀다. 캠프 기간 내내 존중과 배려를 경험한다.

청소년인권평화캠프 숲·수·다는 일방적 강의나 교육이 없다. 모든 프로그램은 “마당”이라고 불리며 이주민 청소년과 선주민 청소년, 청년대학생 그리고 전문가 모두가 참여자로 교육에 참가한다. 주입식 강의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든 참여자가 스스로 말하고 생각하고 표현함으로써 성찰과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다. 참여자 모두가 별칭(닉네임)을 만들어 서로를 호명하며 수평적 관계를 경험한다. 마당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서로가 가르치고 배운다. 일방적 강의와 교육을 넘어서 상호교육의 가치를 실현한다.

청년대학생으로 참가한 한 신대원생은 “자유롭게 활동하고 행동하는 청소년을 제재하고 통제하려는 자신의 욕구를 돌아보게 되었다. 말을 잘 듣는 것,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 청소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틀이 깨졌다.”고 말한다. 또 다른 학부생은 “청소년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걱정이 되고 염려

가 되었다. 통제를 하거나 잔소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염려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규율이나 통제가 익숙했던 교육 방식에 대해서 성찰한다. 대다수 학교나 지역교회는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기질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통제하려고 한다. 그래서 청소년은 자율적이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신에 교사나 교역자가 제한한 내용을 수동적으로 따른다. 청소년인권평화캠프 숲·수·다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청소년과 청년대학생이 모두 자기가 생긴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마당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자기 같은 모습, 자기 같은 몸, 자기 같은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말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득한다. 선주민 청소년 가운데 한 참가자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이 어렵다. 다양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감정을 솔직하게 나타내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한다. 슬프거나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아프거나 고통스러운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많다. 청소년인권평화캠프 숲·수·다가 지향하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전한 공간, 평화로운 공동체”이다. 이주민 청소년 가운데 한 참가자는 “상처를 받으면 그냥 웃는다. 차별하는 말과 행동에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서로 어색해진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솔직한 마음도 전한다. 그 참가자는 “내가 외모가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엄마도 외국인이라 나를 놀리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라고 말하며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차별을 받았던 일을 회상하며 말한다. 고정관념이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질문했더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한다.”고 대답한다. 청소년인권캠프 숲·수·다는 바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안전한 공간이며 평화로운 공동체”이다.

3) 지역사회 네트워크

다문화사역에 있어서 네트워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지역교회와 지역사회에서 다문화사역을 담당하는 교회와 기관이 협력하고 연대함으로써 이주민과 선주민이 평화로운 공존을 실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전문가, 학자가 함께 모여서 다문화사역과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이것이 바로 다문화사역을 담당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이다. “다문화까페”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노동이주자, 혼인이주자, 이주민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 의료, 건강, 복지,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이 모임에 참

여하는 활동가는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이철우 대표, 사단법인 이주가족복지회 이상옥 이사장, 사단법인 이주가족복지회 한신애 사무국장, 공간엘리사벳 오현선 대표, 다누리콜광주센터 권현희 센터장,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 박흥순 소장, 광주이주민건강지원센터 박성옥 사무국장이다.

“다문화카페” 모임은 각자가 속한 다문화지원기관과 이주민지원기관이 진행하는 사업과 교육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하는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을 진단하고 토론한다. 특별히 매년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하는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이주민·난민과 인권” 주제회의를 2015년부터 공동으로 주관해 오고 있다.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력과 연대라는 중요한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한다. 2015년부터 참여했던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이주민·난민과 인권” 주제회의에 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다.

제5회 2015세계인권도시포럼은 “모두를 위한 인권도시들의 전 지구적 연대Ⅱ”라는 주제로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하여 2015년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주제회의는 8개 분야에서 진행하고 “이주민과 인권” 주제회의는 “이주민의 목소리로 듣는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 5월 16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있었다. 지금까지 이주민 인권에 대해서 전문가, 학자, 활동가가 대변해서 주장해 왔던 것과는 달리 이주민 목소리를 먼저 듣고 선주민 전문가와 학자가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⁵³⁾ 박흥순 다문화목회연구소장⁵⁴⁾이 좌장을 담당하고 200명이 넘는 시민, 활동가, 학생, 전문가, 학자가 참여하고 진지한 강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주민 목소리는 블라디미르 티로노프(박노자) 교수의 “이주민과 인권 - 한국 이주민 정책과 인권”, 아브둘라예바 샤홀로 활동가의 “이주여성의 목소리로 듣는 인권”, 소모뚜 활동가의 “이주노동자, 난민의 목소리로 듣는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세 명의 발표 후에 오현선 교수, 신우철 완도군수, 한신애

53) 2015세계인권도시포럼, 『이주민의 목소리로 듣는 인권 - 이주민과 인권 자료집』(광주: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교육청, 2015년 5월 16일). 이주민과 인권 주제회의는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대표 이철우), 호남지역다문화선교회(이사장 김유수), 호남신학대학교 생명과공명기독교사역과교육연구소(소장 오현선), 사단법인 이주가족복지회(이사장 이상옥), 다누리콜1577-1366광주센터(센터장 권현희)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54) 다문화목회연구소는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 전신으로 2015년 4월에 설립되었고, 광주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 2017년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로 개명하고 활동하고 있다.

센터장이 토론을 담당했다.

제6회 2016세계인권도시포럼은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하여 2016년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렸다. 주제회의는 8개 분야에서 진행하고 “이주민·난민과 인권” 주제회의는 “이주민과 난민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2016년 7월 23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있었다.⁵⁵⁾ 최홍협 교수가 좌장을 담당하고 150명이 넘는 시민, 활동가, 학생, 전문가, 학자가 참여하고 진지한 강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오경석 소장의 “한국사회 이주노동자와 난민의 주거 실태”, 신지원 교수의 “이주민의 통합과 시민권의 구현”, 아론 헤르난데즈 켈라도이 활동가의 “도시화와 개발에 따른 이민자의 인권문제”로 발표를 했다. 세 명의 발표 후에 음비 토나 교수, 정석원 감사관, 한신애 센터장이 토론을 담당했다.

제7회 2017세계인권도시포럼은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하여 2017년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렸다. 주제회의는 8개 분야에서 진행하고 “이주민·난민과 인권” 주제회의는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은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2017년 9월 16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있었다.⁵⁶⁾ 최홍엽 교수가 좌장을 담당하고 150명이 넘는 시민, 활동가, 학생, 전문가, 학자가 참여하고 진지한 강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압둘라예바 샤홀로 선생의 “이주여성 인권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베르나르 메크레 부시장의 “프랑스 이민정책과 사회통합 주제”, 차크마 마니 로넬 대표의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와 법과 제도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이주민 발제를 했다. 이후에 오현선 교수의 “이주민과 선주민이 공존을 위한 다수자 교육”, 전진숙 시의원의

55) 2016세계인권도시포럼, 『이주민과 난민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 - 이주민·난민과 인권 자료집』(광주: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교육청, 2016년 7월 23일). 이주민·난민과 인권 주제회의는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대표 이철우), 호남지역다문화선교회(이사장 김유수), 다문화학회연구소(소장 박흥순), 사단법인 이주가족복지회(이사장 이상욱), 광주이주민건강센터(이사장 이흥주)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56) 2017세계인권도시포럼,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과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 - 이주민·난민과 인권 자료집』(광주: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교육청, 2017년 9월 16일). 이주민·난민과 인권 주제회의는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대표 이철우),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소장 박흥순), 호남신학대학교 생명과공명기독교사역과교육연구소(소장 오현선), 사단법인 이주가족복지회(이사장 이상욱), 광주이주민건강센터(이사장 이흥주), 다누리콜1577-1366광주센터(센터장 권현희)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주민 인권조례를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선주민 발제를 했다.

제8회 2018세계인권도시포럼은 “우리는 이주민·난민과 성평등하게 살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하여 2018년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주제회의는 8개 분야에서 진행하고 “이주민·난민과 인권” 주제회의는 “리는 이주민·난민과 성평등하게 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2018년 10월 20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있었다.⁵⁷⁾ 박홍순 소장이 좌장을 담당하고 150명이 넘는 시민, 활동가, 학생, 전문가, 학자가 참여하고 진지한 강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간바야사 가크 젠더평등센터 대표, 허오영숙 한국이여성인권센터 대표, 최영일 김포시외국인주민센터 센터장, 안드레아 자무르 상파울루 인권사무국 코디네이터가 “이주민 난민과 성평등”에 대해서 발제한 후에 토론으로 이어졌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이주민·난민과 인권 주제회의를 진행할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다문화 담론과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다문화지원기관과 이주민지원기관 활동가와 전문가를 비롯해서 교수와 학자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광주광역시 이주민 정책과 다문화사역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주민·난민과 인권 주제는 이주민이 스스로 자신들 목소리를 내는 것에 주목한다. 동시에 이주민 목소리를 듣고 선주민이 응답함으로써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한다. 다문화사역은 네트워크와 거버넌스를 만들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만든다.

특히 2018년 세계인권도시포럼은 특별행사로 광주세계인총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부터 매월 1회 이상 모여서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인권침해와 관련된 경험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주민이 선정한 주제에 관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주민이 공적인 공간에 모여서 각자 목소리를 표출하고 그 의견을 모아서 ‘다수자 - 선주민 교육의 필요성’, ‘소수자 - 이주민 역량강화 교육’, ‘이주민 의료지원 체계

57) 2018세계인권도시포럼,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과 성평등하게 살고 있는가? - 이주민·난민과 인권 자료집』 (광주: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교육청, 2018년 10월 20일). 이주민·난민과 인권 주제회의는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대표 이철우),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연주소(소장 박홍순), 공간엘리사벳(대표 오현선), 사단법인 이주가족복지회(이사장 이상욱), 광주이주민건강센터(이사장 이흥주), 다누리콜1577-1366광주센터(센터장 권현희)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구축’, ‘정보 접근 및 알 권리’, ‘이주민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와 같은 발표와 토론 후에 5개월 동안 워크숍과 토론을 거쳐서 완성한 “광주이주민 인권선언문”⁵⁸⁾을 발표하고 채택했다.

다문화사회에서 ‘서로비추기’와 ‘서로배우기’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질문한다. ‘모든 사람’이라는 범주에서 그 누구도 배제되거나 제외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⁵⁹⁾ 하지만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는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는 아직도 혐오와 차별과 배제에 노출된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체류기한이 경과한 사람을 부르는 용어 가운데 “불법체류자(illegal immigrants)”라는 단어를 의식하지 않고 사용한다. 하지만 엘리 위젤(Elie Wiesel)이 지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합법이다!”⁶⁰⁾라는 선언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바뀌지 않은 한 다문화사회에서 ‘서로비추기’와 ‘서로배우기’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세계인권선언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를 다시 주목해 본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자매]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이 선언은 1948년 12월 10일에 태어난 세계인권선언 제1조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여기에 동의했다. 현재 소수 지배집단이 전파하는 신자유주의의 거짓 때문에 이 세계에서 공동의 의식은 소외당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의 의식에는 모든 인간이 동일한 권리를 지닌다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다. 타인에 대한 공포, 부정, 경멸이 전 세계에서 더욱더 맹위를 떨칠수록, 신비하게도 희망은 더욱더 커진다. 사람들의 의식이 반기를 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다시 시작할 때다.⁶¹⁾

58) 광주이주민인권선언문은 이주민 인권 선언문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주민이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2018년 10월 20일 광주세계인총회에서 채택한 후 2018세계인권도시포럼 폐막식에 광주광역시에 제출했다. 광주이주민인권선언문은 이 글 부록으로 첨부한다.

59) 파커 파머는 미국 민주주의 제도를 설립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나는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설립자들이 의도한 대로 기능할 때 그 가치를 믿을 수 있다. 비극적이게도 그 설립자들은 우리 국민의 ‘국민’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의 ‘모든’에서 여성, 인디언 그리고 노예들을 제외시키는 오류를 범했다.” 파커 J. 파머,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80.

60) <https://bordercrossinglaw.com/elie-wiesel-no-human-being-is-illegal/> 엘리 위젤은 그의 기고문에서 “모든 사람은 합법이다(No human beings are illegal)”이라고 강조한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권리를 지닌다는 선언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할 때 ‘서로비추기’와 ‘서로배우기’는 가능하다. ‘모든 사람’이라는 범주에서 그 누구도 배제되거나 제외되지 않을 때 온전한 환대가 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서로 비추어 성장하고, 서로 배우는 과정에서 “공공성”⁶²⁾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쇠락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변화하고, 창조하고, 생명을 유지하려면 변방에 머물러야 한다. 변방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으로 이와 같은 ‘변방 의식’이 중요하다.⁶³⁾ 신영복은 변방 의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변방 의식은 세계와 주체에 대한 통찰이며, 그렇기 때문에 변방 의식은 우리가 간혀 있는 틀을 깨뜨리는 탈문맥이며, 새로운 영토를 찾아가는 탈주(脫走) 그 자체이다. 변방성 없이는 성찰이 불가능하다. ... 스스로를 조감하고 성찰하는 동안에만, 스스로 새로워지고 있는 동안에만 생명을 잃지 않는다. 변화와 소통이 곧 생명의 모습이다.⁶⁴⁾

변화와 창조와 생명을 유지하는 토대인 변방 의식은 변방에 머물러 있어도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변방에 머물러 있으면서 중심부를 기웃거리거나 열등감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변방 의식과는 관계가 없는 삶이다. 변방 의식이 필요한 까닭은 변방이나 주변부에서 살아가는 ‘낮선 사람’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변방 의식은 ‘편들기’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끈다. 변방 의식은 중심부와 변방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함께 “감정이입(empathy)과 이성적 공감(sympathy)”⁶⁵⁾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변화와 소통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이끄는 변방 의식은 결국 “목소리 없는 사람들(the voiceless)”⁶⁶⁾을 편든다. ‘서로비추기’와 ‘서로배우기’가 이주민과 선

61) 장 지글러, 『유엔을 말하다』, 18.

62) 김현경은 “환대는 공공성을 창출하는 것이다. 아동학대방지법을 만드는 일, 거리를 떠도는 청소년들을 위해 쉼터를 마련하는 일, 집 없는 사람에게 주거수당을 주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실업수당을 주는 일은 모두 환대의 다양한 형식이다. 자유로운 인간들의 공동체라는 현대적 이상은, 생산력이든 자본주의의 모습이든 역사의 수레바퀴가 어떤 자동적인 힘에 의해 앞으로 굴러감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러한 공공의 노력을 통해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서울: 문학과지성사, 2015), 204.

63) 신영복, 『변방을 찾아서』(파주: 돌베개, 2012), 26.

64) 신영복, 『변방을 찾아서』(파주: 돌베개, 2012), 27.

65) 시민건강연구소, 『몸은 사회를 기록한다 - 우리 몸에 새겨진 불평등의 흔적들』(서울: 낮은산, 2018), 9.

주민, 이주민 성도와 선주민 성도 사이에 균형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변방 의식을 갖고 “편들기”⁶⁷⁾를 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지역교회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편들기를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낮선 사람’과 연대하는 하나님 환대에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66) 목소리 없는 사람들은 온갖 고통, 아픔, 상처, 불이익, 불의와 불평등으로 인해서 쫓겨나고 버려진 사람들,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마이너리티를 지칭한다. 박흥순, “성서의 관점에서 본 마이너리티 문제”, 『기독교사상』 통권 643호(2012년 7월호), 40; R. S. Sugirtharajah, “From Orientalism to Postcolonial: Note on Reading Practices,” *Asian Journal of Theology* 10(1996), 24.

67) 김승섭, 『아픔이 길이 되려면 - 정의로운 건강을 찾아 질병의 사회적 책임을 묻다』(서울: 동아시아, 2017), 107-108. 김승섭 교수는 대기업에 맞서서 약자 편에 편들기를 해야 할 용기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의 책에서 보스턴 보건대학원 리처드 클랩(Richard Clapp) 교수를 인용한다. 대기업 IBM에 맞서서 직업병을 앓고 있는 노동자 200명이 소견서를 부탁했을 때 선택을 서술한다. 기꺼이 진실 편에서 약자와 함께 싸웠던 이유를 클랩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콜리앳과 맞서는 것이지요. 법정에서 노동자들은 보통 이길 수 없습니다.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그런 말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변호사나 어떤 학자는 그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광주 이주민 인권 선언문⁶⁸⁾

전문

세계인권선언문, 광주인권현장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에 살고 있는 이주민의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고, 우리 모두는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체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온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곳 광주가 인류 보편가치인 인권에 기반 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라며 이주민과 선주민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인권문제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그동안 고민해왔던 의제들을 토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인권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이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긴급 의제를 제안하였고, 이러한 고민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라며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고민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본 선언문에 모든 이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였지만 지속적으로 함께 의논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선언문은 광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활동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연대의 몸짓입니다.

2018 광주 세계인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 70주년을 맞이하여 이주민들과 선주민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을 줄이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주민의 인권을 단단하게 하고자 이 선언문을 채택합니다.

본문

이 선언문의 본문은 5장 22개 조항, 우리의 약속으로 구성되었고, 부록에는 각 장에 대한 이주민의 목소리를 덧붙였습니다.

68) 2018세계인권도시포럼 특별행사로 진행한 광주 세계인총회를 2018년 10월 20일 개최하고 광주이주민인권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광주이주민인권선언문은 9월 19일에 제정했다.

제1장 인간의 기본 권리

제1조 모든 이주민은 인종, 피부색, 외모, 장애, 언어, 종교, 국적, 출신 지역, 체류자격, 나이, 성(젠더), 학력, 재산, 가족형태, 혼인 상태, 자녀 여부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2조 모든 이주민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문화나 종교, 사상을 받아들일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3조 모든 이주민은 자신의 모국어(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조 모든 이주민은 자신의 여권, 신분증, 통장을 포함한 모든 개인 명의의 법적문서(서류)를 스스로 관리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5조 모든 이주민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귀화할 것을 강요받거나 국적 변경 권리를 부정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민 자녀가 무국적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6조 모든 이주민은 박해를 피해, 피난처를 구하고 망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이주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주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는 정부와 지자체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2장 인간답게 살 권리

제7조 모든 이주민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보험 가입, 의료지원 등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8조 모든 이주민은 어떤 이유로도 차별과 제한을 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9조 모든 이주민 아동은 양육과 발달에 필요한 환경과 모든 지원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10조 모든 이주민은 이주한 국가 및 정부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으며,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1조 모든 이주민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며 필요한 정보 및 참여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12조 모든 이주민은 이주해 온 나라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알고, 경험할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선주민이 이주민 나라의 사회와 문화

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3장 인간답게 일할 권리

제13조 모든 이주민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을 이동할 자유를 가지며 어떤 이유로도 제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14조 모든 이주민은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보수를 받으며 노동환경의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5조 모든 이주민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가입 및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16조 모든 이주민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장 안전하게 살 권리

제17조 모든 이주민은 범죄, 폭력, 재해, 재난으로부터 보호 및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18조 모든 이주민은 쾌적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9조 모든 이주민은 단속 및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20조 모든 이주민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적법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5장 이주민 협의체 구성 권리

제21조 모든 이주민은 지역 차원에서 가능한 공동체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며 이주민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22조 모든 이주민은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긍정적 만남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서로의 차이를 인식할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이주민은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나눔과 연대의 광주 공동체 형성에 협력하고 세계의 모든 시민이 평등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약속〉

- 우리는 차별행위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 우리는 시민의식을 갖고 사회에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 우리는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 우리는 세계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현장에서 지키고 실현할 것을 약속합니다.
- 우리는 긍정적 만남의 장이 마련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부록

- 이주민의 목소리를 담다 -

인간의 기본 권리

1. 이주민은 광주시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주민은 이주민보다 먼저 정착하여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권은 인간답게 살 권리이며, 평화는 차별을 줄여나가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공존은 어느 누구도 어떠한 이유와 차별 없이 있는 그대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2. 이주민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배우자, 가족 등의 이유로 그 어떠한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혼인 이주여성으로서 혼인, 이혼, 임신, 출산, 양육 문제에 있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3. 우리는 자국을 대표하는 영사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고유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 나라 사람 모두가 이와 같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4. ‘이주민, 다문화가족’이라는 명칭이 긍정적이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노동 현장에서는 착취의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차별과 냉대를 받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차별로 인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이와 같이 목소리를 냅니다.

인간답게 살 권리

· 교육권

1. 모든 이주민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주민 아동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한국 사회의 태도는 아동에 대한 차별이라고 봅니다. 유아, 초등, 중등, 고등 과정에서 인권, 문화 다양성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이주민인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를 보다 정의로운, 보다 자유로운, 보다 더불어 사는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평화롭고 서로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지향하며 이러한 목소리를 냅니다.

2. 광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체류자격, 출신 국가, 종교, 언어, 인종, 성, 나이 등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이주민의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초·중·고등학생들의 이주민 이해 교육을 위해 세계시민교육센터 설립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더불어 우리는 광주시에 다수자 및 소수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평화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진행 및 미등록, 단기 체류자 아동의 공교육 참여 보장을 요청합니다.

· 정보 접근 및 알 권리

1. 우리는 국가 및 정부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양한 지원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및 정부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때 쉽게 찾을 수 없고, 다양한 언어로도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주민이란 사회구성원 자체로 존중과 인정을 받으며, 더불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인터넷, 신문 등 기타 소통 수단을 통해 실시간으로 광주시 소식(정책, 토론회, 포럼 등)을 주요 나라별 언어로 제공받고 서로 교환하며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 토론하여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것입니다. 광주시는 이러한 정보에 입각해서 정책을 수시로 조정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인간답게 일할 권리

우리는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UN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에 비준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 기간은 4년 10개월로 제한하는 등 가족결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있으면 심리적 안정을 찾고, 더 효율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광주시에 노동권 보장의 일환으로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안할 것을 요청합니다.

안전하게 살 권리

모든 이주민은 긴급한 상황(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인신매매)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상담 및 법적 지원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주민협의체 구성 권리

협의체는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협력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킹을 통해 이주민은 현장의 목소리를 알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최대한 이주민의 목소리를 살려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주민협의체 구성을 요청합니다.

[메모]

[메모]